(aur_i)

국토경관 GOOD PRACTICE

1

❶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10년 돌아보기

❷ 철새평화타운 스토리

❸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❹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마련

GOOD PRACTICE ❶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10년 돌아보기 p.008	부산	2009 ~ 2014
GOOD PRACTICE ❷ 철새평화타운 스토리 p.032	철원	2010 ~ 2016
GOOD PRACTICE ❸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p.054	인천	2017
GOOD PRACTICE ❹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마련 p.076	시흥	2017 ~ 2020

국토경관 GOOD PRACTICE 1

(auri)

목차

GOOD
PRACTICE 1

부산

2009~2014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10년 돌아보기

부산 해운대에 자리해 어촌기능이 살아 숨 쉬는 청사포. 2000년대에 들어 해운대가 고급주거지로 급변하면서 이곳 역시 전통적인 경관이 사라지고 있었다. 도시어촌이라는 독특한 장소성과 경관 그리고 전통성을 지키고자 경관협정사업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일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경관사업을 진행한 결과 청사포는 도시어촌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뽐내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008

GOOD
PRACTICE 2

철원

2010~2016

철새평화타운 스토리

2016년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이 문을 열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누리쉼터상을 수상하고, 어느새 한 해에 1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생태휴양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건축·철새·생태프로그램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업하여 이뤄낸 철새평화타운의 초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본다.

032

GOOD
PRACTICE 3

인천

2017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인천광역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경관심의 내용과 방법을 익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건축·개발사업·경관협정·공공시설물 등 일곱 가지 사례를 통해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경관심의가무엇인지 알아본다.

GOOD
PRACTICE 4

시흥

2017~2020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마련

시흥시는 양우재와 물왕동서로길을 경관협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관 개선을 추진하였다.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도로과, 공원관리과 등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여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 즉각적이면서 종합적인 개선을 진행했다. 2017년 양우재에 이어 2018년 물왕동서로길까지 차근차근 이어오고 있는 시흥시의 경관협정 사례를 살펴본다.

발간사

우리는 개발위주의 빠른
경제성장 시대를 지나
이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하고, 배려하는
공간이 제공해주는 의미와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 속에서 세계
도처에서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됩니다.

예전에는 웅장하고 수려한 자연이 주는 경관을 선호하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활기찬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시의 경관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보다 매력적인 도시, 보다 아름다운 국토 경관을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아름다운 국토 경관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는 있지만, 이전 시대의 개발지향적 관성으로 인해 조화와 배려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해 가는데 종종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2019년 건축공간연구원(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가 개소하였고, 경관관리 정책 지원, 경관주체 역량 강화, 선도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등, 여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경관의 학문적 정의와는 별개로 경관이 정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장소 단위에서 경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관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공무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관은 단일 대상이 아니라 여러 대상의 집합체로서 얽혀 있습니다. 경관이라는 행정업무와 학문분야가 자리하고는 있으나, 정책적으로 도시재생, 문화, 산업, 지역개발, 주택, 가로, 디자인 등 관련된 분야 자체가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이처럼 대상이 단일하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으며, 많은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경관'을 정책의 대상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행정공무원들과 해당 주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해결에 함께 해주신 우신구 교수님, 조경진 교수님, 정두용 팀장님, 정화진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에서 해석, 소개되는 여러 우수 사례들이 매력적인 지역과 아름다운 국토 경관 조성에 있어서 요긴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 12.
박소현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기획의 글

「국토경관 GOOD PRACTICE」는 장소중심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경관행정 담당자와 주민 등 관계자들이 경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인들이 좋은 경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 경관행정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경관행정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경관'이란 무엇이며, 우수한 경관사업의 대상은 무엇일까?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 등에 의해 좋은 경관을 만들어낸 사업을 소개해야 할까? 경관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시상제도의 수상작을 소개해야 할까? 주관적일 수 있는 '좋은 경관'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좋은 경관에 대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수많은 질문들이 오갔지만, 분명한 것은 '좋은 경관'은 단시간에 특정 대상을 보기 좋게 만든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좋은 경관에 대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선정한 부산 청사포와 철원 양지리 사례는 장소중심의 통합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통합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경관관련 사업을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꾸준히 진행해 온 사례이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통합된 경관을 형성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총 42개 사례 가운데 초기에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두 지역의 '통합마스터플랜'이 거의 10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당시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을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관이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이 변했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좋은 경관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관행정 우수 사례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본 경진대회는 일선 행정기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경관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2017년에, 시흥시는 2018년에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경관심의와 경관협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시행해야 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선도 사례들이다. 무엇보다 현장감 있는 실제 사례로서, 지자체 여건은 다르겠으나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것들이다.

4개의 사례는 각각 실제 지원사업과 행정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의 원고 작성으로 진행되었다. 원고 작성에 앞서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가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경관포럼'에서 두 회에 걸쳐 각 사례들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의 사례들은 지역별로 여러 여건이 상이하고 주제도 각기 다르다. 개별 사례들의 내용과 추진과정이 최대한 잘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 서술하여 일반인, 전문가, 공무원 모두에게 경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실무적으로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 12.
심경미, 이상민, 이경재, 송운정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GOOD
PRACTICE 1

부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10년 돌아보기

2009-2014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전공 교수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사업총괄계획가

부산 해운대에 자리해 어촌기능이
살아 숨 쉬는 청사포. 2000년대에
들어 해운대가 고급주거지로
급변하면서 이곳 역시 전통적인
경관이 사라지고 있었다.
도시어촌이라는 독특한 장소성과
경관 그리고 전통성을 지키고자
경관협정사업이 시작되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일상을 조금씩 바꿔가는
경관사업을 진행한 결과 청사포는
도시어촌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뽐내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다.

I

경관사업 1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10년 돌아보기

© 우산구

청사포마을 너머로 보이는 해운대 신시가지

1. 대상지 개요

청사포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하는 작은 어촌마을이다. 동백섬과 달맞이 언덕,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는 해운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휴양지로 유명하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온천이 있어서 예전부터 여름철 피서객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이 허니문 여행지이기도 했다. 5성급 호텔이 즐비한 해변은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우동의 대우마리나 아파트 등이 입주하고, 1990년대 후반 해운대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해운대는 동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지로 거듭나게 된다. 이후 2000년대 초반의 센텀시티, 2000년대 중후반의 마린시티가 차례로 완성되면서 오늘날 해운대는 휴양지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도 해운대 곳곳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여러 곳의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청사포는 해운대 달맞이 언덕 아래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는 어촌마을이다. 언덕길에 올라 내려다보면 드넓은 동해바다에 외로이 면한 작은 어촌마을이 보이고, 마을 가운데에는 청사포의 상징과 같은 빨간색과 흰색 두 개의 등대가 포구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방파제 끝에 자리 잡고 있다. 2013년까지만 해도 동해남부선 기차가 이따금 마을가운데를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을 속으로 들어가면 수백년 전부터 쌓아올린 돌담이 골목골목 이어져 있고, 지붕 낮은 어촌가옥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서 바람 많은 어촌마을의 경관이 잘 남아 있었다.

고급주거지이며 관광휴양의 중심지인 해운대에서 청사포가 독특한 점은 청사포의 어촌기능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5대 이상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토박이 주민들이 많고, 여전히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살고 있다. 어민들은 주로 미역 양식에 종사한다. 가을에 접어들면 포구와 물양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미역 양식으로 바빠진다.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자란 싱싱한 미역을 물양장으로 쉴 새 없이 싣고 와서 분류하고 도매상인들에게 넘기는 작업이 매일 반복된다. 초봄이 되면 질겨져서 생으로 먹기 어려운 봄미역을 물양장, 해안도로, 동네골목과 지붕, 마을 곳곳에 널어 말린다. 어촌마을 청사포의 봄풍경이다.

역사 깊은 어촌마을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역사문화경관도 구석구석 남아 있다. 많은 어촌마을처럼 청사포에도 바다로 나간 지아비를 기다리다 소나무가 되었다는 골매기할매의 전설을 간직한 망부석과 망부송 그리고 마을당산이 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손장군비석이 있는데, 이는 동해남부 해안마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거릿대 신앙을 보여준다. 청사포 토박이 주민들은 매년 대표를 뽑아 1년에 세 번 마을당산과 비석을 찾아다니며 제사를 지내면서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산에서 나무를 잘라와 동방파제 등대 아래에 커다란 달집을 세우고 저녁이 되면 달집을 태우면서 마을의 액운을 쫓고 한 해의 복을 함께 기원하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오랜 풍습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마을의 역사적 장소와 그 장소에서 모여 함께 거행하는 제의는 마을 사람들

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2000년대 들어 해운대가 고급주거지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청사포에도 횟집들이 줄지어 생겨나고, 마을 주변의 빈 땅에는 빌라같은 다세대 주택들이 지어지면서 전통적인 어촌경관이 차츰 사라지고 있었고,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도 차츰 희박해졌다. 어촌마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였다. 청사포의 경관사업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였다.

2. 마스터플랜

2.1 기본구상

2.1.1 경관협정의 경험

주요 사업추진과정

2009. 9	국토부『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선정(최우수)
2010. 3	마스터플랜 수립(청사포 일원)
2010. 4	MOU 체결 ▷ 부산광역시장 + 국토부장관
2011. 6~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고, 국가와 각 지자체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부산시에서는 2008년 도시경관기획단이후 도시경관과로 변경이라는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관협정에 관심을 두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를 물색하였다. 2009년 해운대에 있어서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동시에 독특한 어촌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청사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경관협정이 매우 생소한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기도 했다. 사업을 설명해도 마을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주민들의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았다. 당시 도시경관과의 담당계장은 필자와 메종건축사사무소의 조형장, 이원영 두 소장에게 민관 사이의 조정과 무료 컨설팅을 요청함으로써, 민간전문가로서 청사포 경관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민대표, 행정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당시 경관협정제도가 주민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사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시각적 효과는 크면서도 주민들이 지키기 쉬운 단순한 내용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해안도로에 면한 횟집 등 상가건물과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마을옛길 주변의 주택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방문객들이 진입하는 마을옛길에 면한 집들은 담장을 정비하고, 어촌마을에 어울리는 우편함을 설치하고, 해안

도로변 상가건물 전면에는 누구나 앉아 쉴 수 있는 벤치와 동백나무를 심은 화분을 설치하여 해안마을의 지역성을 느낄 수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사업에 필요한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대신 협정에 참여하는 47가구의 주민과 상인은 5년 동안 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책임지는 내용에 양측이 동의함으로써 2009년 9월 부산 최초의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2.1.2 경관협정의 성과

경관협정을 컨설팅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마을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청사포가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가 마을 주민들 사이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외부인들이 보면, 청사포는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은 두 개의 마을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동해남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낮은 해안 쪽 마을은 청사포마을, 사면을 따라 위쪽을 신기마을새터마을로 분명하게 구분한다. 원래 청사포마을은 해안에 면한 어촌마을로 시작했지만, 인구가 차츰 증가하면서 해안 쪽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게 되었고, 하나둘 철도너머 위쪽으로 올라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고 마을이름도 자연스럽게 새터마을신기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사포마을이 원조이기 때문에 마을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발언권도 세고, 대부분의 주민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청사포마을에 있었다.

해운대가 고급주거지로 발전하면서 청사포마을의 해안도로에 면한 집들은 대부분 2~3층의 횟집이나 조개구이 집으로 바뀌었고, 해운대 신시가지와 가까운 신기마을의 농지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신기마을 중간까지 개통된 4차선 진입도로가 해안도로까지 연결되고, 동해남부선 철도가 폐선되면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런 도시화와 상업화로 인해 돌담길, 어촌가옥, 집 주변의 텃밭 등 독특한 어촌경관이 조금씩 사라졌다. 청사포 토박이 주민이 아닌 신규주민들이 늘고, 해안가 식당에도 뜨내기 상인들이 늘어나는데, 이들은 마을의 역사나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고, 마을 회의나 행사에도 잘 참여하지 않는다. 한 마을에 살고 있지만, 같은 마을사람이라는 커뮤니티 의식이 옅어진다.

원래 청사포 주민들의 주업은 미역양식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이며, 그 중에는 고령의 해녀들도 있었다. 미역의 양식과 판매는 주로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집중되고, 이 기간 중에는 외부에서 인력을 데리고와야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지만, 양식 작

업이 끝나고 어구들을 청소하고 정리하면 마을에 일거리가 부족하다. 다른 기술이 있거나 젊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나가 일거리를 구하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집에서 쉬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든다. 물살이 빠른 청사포 앞바다는 좋은 품질의 미역을 생산하지만 2차 가공이나 3차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시어촌의 어업은 영세한 1차 산업에 머물러 있었다.

한편 청사포의 횟집이나 일부 조개구이집은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졌고, 자연히 어민들과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었다. 청사포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며, 자연스레 마을 해안도로는 손님들의 주차장이 되었다. 손님이 많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해안도로가 부족해 포구의 물양장까지 주차차량으로 가득차게 된다. 물양장에 대한 이용권리를 가진 어민들과 손님의 편의를 확보하려는 상인들 사이에 자연히 말싸움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마을의 역사문화공간도 차츰 잊혀지고 있었다. 마을당산의 사당과 담장은 낡고 노후화되었고, 당산의 담장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신축되면서 건설 중장비가 망부송의 큰 가지를 부러뜨리는 등 기존 주민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 고소고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골매기할매가 서 있었다는 망부석 위에는 청년회가 사용하는 낡은 컨테이너와 노점상 차량이 자리 잡고 있어서 방문객들은 정작 바위를 볼 수도 없었다. 손장군비석 주변도 시멘트 미장으로 마감한 바닥과 담장이 낡은데다, 큰 간판을 단 횟집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횟집마당처럼 보일 정도였다.

마을 내부의 공동체의식은 옅어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 주민대표 몇몇이 청사포발전위원회라는 주민조직을 결성하였다.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단합을 위해 가장 먼저 12년 동안 중단되고 있었던 풍어제를 2008년 다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풍어제는 3박4일 동안 밤낮으로 진행된다. 어촌의 번영과 안전을 기원하는 마을의 가장 큰 행사일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 사진작가, 민속학자, 주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민속문화행사이기도하다. 자연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행사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마을 공동체의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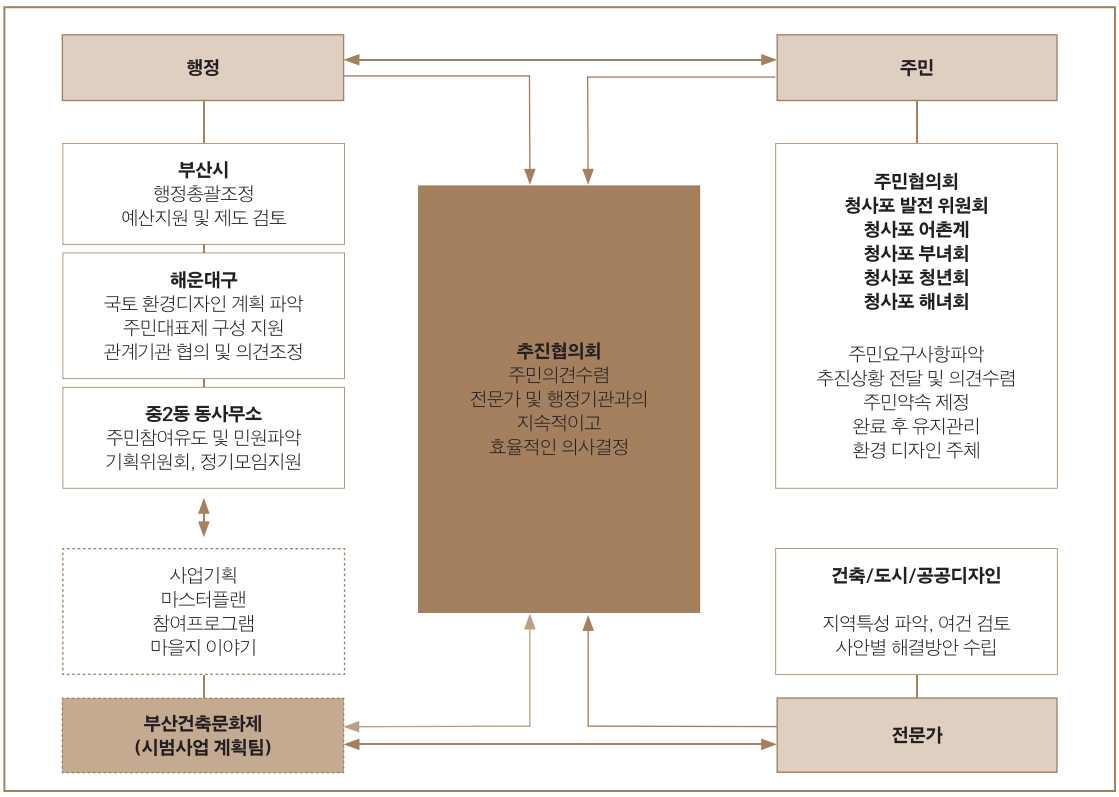
주민들의 이런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어제가 끝난 이후,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청사포마을과 신기마을에 각각 오래되고 낡은 경로당이 하나씩 있고, 청년회나 해녀회는 마을 빈 땅에 설치한 작고 오래된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었다. 어촌계가 소유한 작은 2층집이 그나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2.1.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경관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모여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다. 한편 경관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청사포가 당면하고 있는 공간적, 사회적, 경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마침 국토교통부에서는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다.

청사포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경관협정을 추진한 경험과 마을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최우수계획의 하나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비를 지원받아 청사포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경관협정을 컨설팅했던 필자가 소속된 부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와 메종건축사사무소가 마스터플랜 수립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경관협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은 낙후된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며, 훼손되고 있는 어촌마을의 경관을 회복시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마을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민 간의 균형발전을 이룸으로써 마을공동체가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어촌마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추진체계

마스터플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계획팀은 생각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서 강조했던 Top-down 방식의 계획이 아니라 Bottom-up 방식의 계획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우선 주민대표, 행정부산시 도시경관과, 해운대구, 중동주민센터 그리고 계획팀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획내용을 협의하였다. 추진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였지만 여전히 계획은 대학의 연구실과 건축사사무소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 졌고, 일반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부족하였다.

계획팀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않던 어업인 휴게실의 낡은 컨테이너를 리노베이션하여 석사급 연구원 한 명이 상주하는 〈청사포 정보나눔센터〉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리서치와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민대표와 계획팀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회의를 정보나눔센터에서 개최하여 현장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였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도시재생사업의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당시 마을주민들은 아름다운 어촌마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고, 또한 아름다운 어촌마을을 거의 본 적도 없었다. 주민들이 다른 어촌마을을 직접 봄으로써 자신의 마을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였다. 주민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선진사례지 방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들과 함께 일본 도야마지역의 마을과 이시카와의 어촌을 둘러보면서 마을의 전통적인 공간특성을 잘 보존한 마을경관 가꾸기, 지역의 해산물을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하는 수산물마켓 등을 살펴보았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디자인에 반영하려고 하였다. 물론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디자인샬렛을 개최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청사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마을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도 3회 개최하였다.

또한 조금씩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다 많은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청사포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청사포정보센터의 넓은 유리창을 게시판으로 활용하여 디자인 시안을 게시하여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방문객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2 주요 사업내용

이상과 같은 계획단계를 거치면서 마을의 다양한 주체를 만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계획팀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경관과 관련한 사항이나 사업들을 메모하였다. 주민들의 머리 속에 떠돌다가 사라지는 불만과 요구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마을에 필요한 혹은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이나 과제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과 과제 속에서 그것들이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공통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불편하고 위험한 옛길이나 골목 등 낙후된 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어촌마을의 경관을 회복시켜 마을의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어민과 해녀 등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민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좀 더 지속가능한 도시어촌을 만드는 것이었다.

다양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도출된 다양한 사업과 과제를 어촌마을의 공간에 따라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어민들의 작업공간이며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는 포구와 물양장 주변의 공간과 경관을 정리하는 수변경관사업이다. 두 번째는 마을 옛길의 편의성을 높이고 해안도로의 공공성을 높이는 거리경관사업이다. 세 번째는 마을에 남은 역사적인 공간을 정비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마을경관사업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을의 통합적 이미지TIP을 디

기본 구상도

© 우신구

물양장과 청사포마켓

© 해운대구청

마을당산과 망부송

자인하고 청사포 미역을 브랜딩하며, 방문객들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생활문화경관사업이다. 이 분류는 어촌마을의 중심공간인 포구와 물양장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해안도로와 옛길을 따라 확장하고, 마을의 내부공간과 전체적인 이미지로 사업내용을 확산시키는 공간적 전략에도 부합하는 분류방법이었다.

2.2.1 도시어촌의 중심공간, 수변경관사업

청사포의 중심공간은 포구와 물양장 그리고 각각 등대가 있는 두 개의 방파제이다. 이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수변경관사업은 도시어촌경관의 핵심적인 사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은 청사포마켓이었다.

어민이나 해녀들이 수확한 미역이나 해산물을 헐값에 도매로 넘기지 않고 2차 가공하여 청사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피셔맨즈 마켓 Fishermen's Market'개념이었다. 요즘 개념으로 보면 1차, 2차, 3차 산업이 통합되는 6차 산업을 목표로 하는 공동작업장이었다. 이 마켓이 활성화된다면 영세한 어민과 해녀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마을의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 격차로 인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청사포마을과 인접하여 인구 11만의 해운대 신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질만 확보한다면 충분히 판로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청사포마켓에는 마켓의 기능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도 복합하였다. 마을회관이 없어서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던 주민들이 자주 모여 함께 소통할 수 있다면 공동체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마켓의 위치는 동방파제와 가까운 물양장의 입구 쪽으로 정했다. 마을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지나치는 곳이고, 동시에 횟집을 찾는 방문객들도 마을에 들

세부사업 및 과제의 도출과정

◎ 마스터플랜 ● 마을경관가이드라인 ★ 주민참여 ■ 정보나눔센터 ▲ 마을지이야기

선전지 답사	주민협의회	디자인 샬렛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관련부서 검토
◎ 기존 역사자원 공공공간 조성	◎ 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	◎ 체험 프로그램	◎ 도시가로시설물 계획
◎ 마을안내소	◎ 청사포마켓	◎ 청사포마켓	◎ 주말가족농장	◎ 청사포마켓
◎ 방파제/물양장 음악 공연	◎ TIP&홈페이지&픽토그램	◎ TIP&홈페이지&픽토그램	◎ TIP&홈페이지&픽토그램	◎ 체험 프로그램
◎ 등대경관브릿지 설치 계획	◎ 공영주차장	◎ 진입로 가로변 담장 특화 계획	● 정성적 마을경관가이드라인	◎ TIP&홈페이지&픽토그램
◎ 나무조각 위에 새긴 사람	◎ 도시가로시설물 계획	★ 주민참여	★ 주민참여	◎ Harbor Landmark I&II
◎ 버스쉘터	◎ 진입로 가로변 담장 특화 계획		■ 정보나눔센터	◎ 철도문화공간화 계획
◎ 달맞이길과 연계한 트레일 개발	● 정성적 마을경관가이드라인			◎ 달맞이길과 연계한 트레일 개발
◎ 청사포마켓	★ 주민참여			◎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술관
◎ TIP&홈페이지&픽토그램	■ 정보나눔센터			◎ 체험 프로그램
◎ 마을공간 리모델링				◎ 마을 진입부 상징화계획
◎ 해안도로 보행성 향상 계획				◎ 도시어촌 가옥 정비
◎ 철도 문화공간화 계획				◎ 요트계류시설 및 수상공연장
◎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술관				◎ 진입로 가로변 담장 특화 계획
● 정성적 마을경관가이드라인				◎ 공영주차장
● 정성적 마을경관가이드라인				◎ 공중화장실
★ 주민참여				★ 주민참여
■ 정보나눔센터				
▲ 마을지이야기				

유형별 세부사업

수변경관

- 청사포마켓 및 공중화장실
- 수변쌈지공원 조성
- 버스쉘터
- Habor landmark I
  - 물양장 바닥정비 계획
- Habor landmark II
  - 크레인 색채 디자인
- 동방파제 정비 및 Landmark 조성
  - Sound Scape
- 서방파제 정비 및 Landmark 조성
  - Light Scape
- 요트계류시설 및 수상공연장
- 등대경관브릿지 설치 계획

거리경관

- 마을 진입부 상징화계획
- 마을 옛길로 바닥패턴 및 포장 계획
- 진입로 가로변 담장 특화계획
- 건물파사드 개선 및 옥외광고물 개선
- 해안도로 보행성 향상계획
- 달맞이길과 연계한 트레일 개발
- 도시가로시설물 계획 (쓰레기치장, 수변변압기 등)

마을경관

- 마을지도 만들기
- 마을포토존 만들기
- 기존 역사자원 공공공간 조성
- 마을공간 리모델링
- 경로당 환경 개설

- 마을안내소
- 공영주차장
- 마을회관

- 계획적 개발을 위한 디자인 지침 마련
- 마을축제(풍어제/이벤트)

생활문화경관

- 철도 문화공간화 계획
-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미술관

- 마을 TIP 개발
- 청사포 미역브랜드화 및 상품화
- 청사포 픽토그램 개발
- 청사포 홈페이지

- 수상 공연장 위 달빛 콘서트
- 등대브릿지 위 사랑의 언약식
- 갯바위체험장

- 청사포 골목길 탐방 프로그램
- 도시어촌 가옥 관람·체험
- 주말가족농장
- 꽃밭길, 개울길 체험
- 미역건조장 체험
- 향나무 숲길

4가지 유형별 경관계획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토탈방식의 일관성있는 디자인 적용

어오면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위치였다.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빨간 등대와 하얀 등대와 함께 청사포의 상징적인 입구경관을 형성하기에 좋은 위치였다. 마켓이면서, 커뮤니티센터이고, 마을의 랜드마크 경관으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청사포마켓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마켓에서 일반소비자에게 해산물을 판매하면 기존에 해산물을 파는 식당과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이에 따라 마켓의 기능과 형태만 계획하지 않고, 마켓의 운영체계도 함께 기획하였다. 우선 주민,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사포마켓 운영위원회를 제안하였고, 여러가지 예상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운영규정도 마련하였다. 그 중에 "(판매자는) 청사포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는 조항이나 "(판매방법으로) 해산물 및 활어는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등의 조항은 기존의 횟집이나 상점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2.2.2 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마을경관사업

어업은 날씨나 파도에 따라 수입이 크게 좌우된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닷일은 예측불허의 위험한 일이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은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어촌마을에는 다양한 민간신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청사포 포구 인접한 곳에 전설에 나오는 골매기할매의 사당이 있으며 사당 뒤로는 망부송으로 불리는 노송 다섯 그루가 둘러싸고 있고, 그 앞으로는 할머니가 서서 낭군을 기다렸다는 큰 바위가 포구쪽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해안도로를 따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거릿대를 모신 손장군비석이 있다. 청사포 마을이 동남해안의 어촌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는 민속문화를 간직한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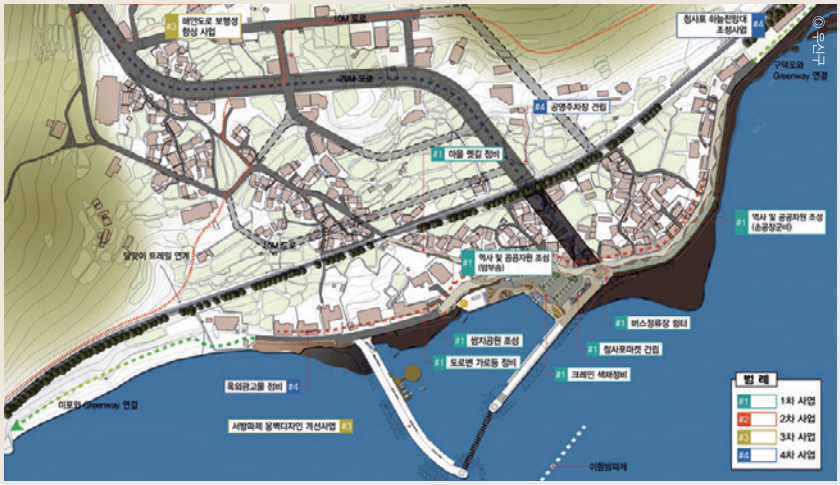
한 마을에서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살면서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청사포 주민들은 망부석과 망부송, 마을당산 그리고 손장군비석 등을 마을의 신성한 공간으로 지켜오면서 마치 한 조상을 가진 친척과 같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도시화되면서 서로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되고,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하면서 한 마을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차츰 옅어진다. 정체성이 옅어지면 어촌마을의 정체성을 대표하던 마을의 종교적 공간들도 따라서 노후화되고 쇠퇴해 간다. 사당과 담장은 낡고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업화로 건설 중장비에 망부송의 큰 가지가 부러져 고소고발이 벌어지기도 했다. 할머니가 섰던 바위 위에는 청년회의 컨테이너와 노점상의 차량이 점유하여 정작 바위는 보이지도 않았다. 손장군비석도 과거에 시멘트 미장으로 마감한 바닥과 담장이 노후화되었고, 횟집으로 둘러싸여 자세히 보지 않으면 횟집 마당으로 알고 지나칠 정도였다.

마을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오래된 역사적 장소와 정신적 공간들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청사포에서는 3군데의 의미

손장군비석

신기마을에 세운 청사포사랑채



경관사업의 단계별 세부사업

있는 장소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역사자원 공공공간조성사업을 계획하였다. 우선 망부송과 골매기할매사당이 있는 청사포당산과 손장군비석 영역은 바람이 많은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려 기와를 올린 돌담으로 교체하여 마을의 성스러운 장소로 회복하도록 계획하였다. 또 마을 주민들이 제례를 거행하는 사당과 내부 마당도 정비하였다.

마을을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해안도로변을 따라 늘어선 횟집이나 상업시설 사이에 사당이나 보호수 그리고 비석이 돌담으로 보호된 성스러운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청사포가 해안변의 일반적인 횟집거리와 달리 역사가 있는 어촌마을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될 것이다.

외부인들이 볼 때, 청사포는 하나의 마을처럼 보이지만, 주민들에게는 두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즉 마을 중간을 가로지르는 동해남부선 철도를 기준으로 해안쪽을 본동마을, 위쪽을 신기마을새터마을로 나뉜다. 원래 마을은 해안쪽의 본동마을에서 시작되었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해안쪽에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하게 되자 사람들이 철로를 넘어 위로 올라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신기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본동마을이 원조인 셈이라서 대부분의 주민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본동마을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기마을 주민들은 늘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기마을 사람들 마음 속의 서운함을 달래고 두 마을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창작공방, 경로당, 다목적 커뮤니티공간을 갖춘 마을회관을 신기마을에 배치하였다.

사업실행경과

2011. 12 ····► 2014. 2
1차 사업완료 ▶ 청사포마켓, 마을옛길 정비

2014. 7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외사업 요트계류시설, 등대경관브릿지, 마을공간 리모델링, 마을안내소
추가사업 해송보도교

2014. 4 ····► 2015. 4
2차 사업완료 ▶ 해송보도교, 마을회관 등

2015. 12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업기간 '09. 9~'15.12 ▶ '09. 9~'16. 12(1년 연장)
제외사업 동방파제 정비, 진입로 가로변 담장특화, 경로당 환경개선
추가사업 하늘전망대 설치(40억)

2015. 1 ····► 2015. 8
3차 사업완료 ▶ 해안도로 보행성 향상공사 등

2016. 9
사업계획 변경승인
사업기간 '09. 9~'16. 12 ▶ '09. 9~'17. 6(6개월 연장)

2017. 6
다릿돌전망대 준공 및 전체 사업완료

3. 주요 사업추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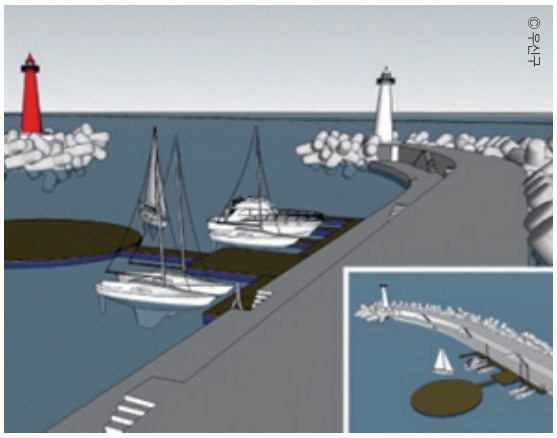
3.1 주요 사업추진 개요

3.1.1 방파제 두 개를 연결하는 등대경관브릿지 계획안

2009년부터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은 계획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수립과정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영주시와 함께 2010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국토부와 부산시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선도사업부터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청사포 통합마스터플랜의 사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면서 마을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했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높았다. 우선 허름하고 노후한 마을의 신앙공간이 전통돌담을 갖춘 깔끔한 공간으로 정비되면서 그곳에 모여 제례를 거행하는 것은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제례에 임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당과 비석 영역을 청소하고 막걸리 같은 제물을 정기적으로 올려놓은 것도 볼 수 있었다.

신기마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 겸 문화시설인 청사포사랑채는 2015년 4월에 준공하였다. 예술가 공방, 경로당,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청사포사랑채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신기마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였으며, 주민들이 모임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부사업계획들이 제외되거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마스터플랜은 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고, 전체 사업은 4차에 걸쳐 진행되어 2017년 6월에야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다.



포구 내에 계획된 요트계류시설

등대경관브릿지

3.2 주요추진사업

3.2.1 요트계류시설과 등대경관브릿지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어 계획 자체의 타당성의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는 사업들이 나타났다. 2014년에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된 요트계류시설과 등대경관브릿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요트계류시설은 해운대에 있는 마리나시설에서 요트를 타고 와서 청사포 포구에 정박하고 청사포를 둘러보고 식당 등을 이용함으로써 마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계획되었다. 또한 계류시설의 가운데는 넓은 무대를 조성하여 공연이나 체험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하지만, 해운대 지역에 새로 생긴 마리나시설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요트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요트정박시설의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부사업들 가운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제외된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은 등대경관브릿지였다. 청사포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빨간 등대가 있는 동방파제와 하얀 등대가 있는 서방파제를 연결하는 경관브릿지를 설치하자는 계획이었다. 방파제와 등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위한 검토단계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청사포는 다른 포구와 달리 바다에 직접 면하고 있어서 태풍이 직접 덮치는 곳으로, 큰 태풍이 불면 해안가 주택들이 다 침수되고 콘크리트로 만든 테트라포드가 파도에 밀려 올라올 정도이다. 가장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청사포마켓

먼저 태풍에 의한 파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포구로 진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태풍에 안전하고, 선박통행안전을 위해 충분한 높이를 확보한 교량을 건설하려니 사업비가 예상보다 많이 추산되었다. 결국 최종 검토단계에서 제외되었다.

3.2.2 청사포마켓

개인적으로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의 통합마스터플랜에서 가장 기대했던 세부사업은 청사포마켓이었다. 잠수복을 갈아입거나 휴식공간도 없이 방파제 콘크리트 벽에 겨우 천막을 쳐서 장사하던 연로한 해녀들은 잡아 온 수산물을 보관할 수 족관도 갖추고, 비바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마켓 옆에 해녀휴게실도 확보하여 추운 몸을 누일 공간도 확보하게 되었다.

해녀들과 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청사포마켓에서 해산물과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면서 꽤 활성화되기도 했지만, 마켓이 활성화될수록 음식물 판매를 둘러싸고 주변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큰 불화를 겪어야 했다. 청사포마켓운영위원회와 운영규정 등의 제도까지 마스터플랜 계획팀에서 마련해 두었지만, 실행단계에 접어들어 계획팀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되고 사업실행을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전담하게 되면서, 실행의 편의를 위해 일부 주민 중심으로 마켓이 운영되었다. 그 결과, 다른 주민들과 새로운 갈등도 발생하였다. 그 결과 청사포마켓은 조금씩 사용이 줄어들어 지금은 일부 마을청년회 회원들과 해녀들의 휴식공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해안도로를 점유한 주차장

3.2.3 해안도로 보행성 향상계획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는 마을 공간의 공공성 회복이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해안도로의 보행성을 높이는 계획이었다. 청사포마을의 해안도로는 몇 번의 태풍피해로부터 복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촌마을보다 꽤 넓은 폭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청사포의 해안도로는 통과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반면 청사포를 방문하는 관광객, 낚시꾼, 식당손님들 중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향후, 동해남부선 철도가 폐선되면 동으로는 송정쪽에서, 서로는 해운대 미포쪽에서 철도를 따라 걸어오는 사람들의 주요 보행동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해안도로는 횟집 손님들의 주차장으로 거의 점유되고 있었다.

해안도로 보행성 향상계획은 청사포를 방문한 사람들이 자동차에 방해받지 않고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해안도로의 주차면을 조금축소하고 바깥쪽에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온 방문객들이 마을을 여유롭게 둘러보려면 해안도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주차면을 줄이는 대신 마을 중앙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막상 사업의 실행 단계에 접어들자, 손님들의 주차면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상인들이 완강히 반대하였다. 마을의 공공공간이 상업화에 잠식되지 않고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계획의 의도는 좋았지만,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팀이 계속 마을에 남아 실행단계에도 참여하고, 담당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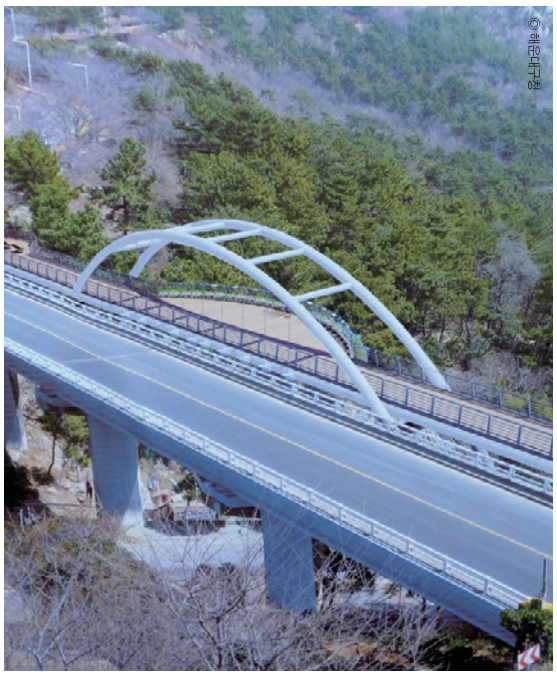
청사포의 다릿돌전망대

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설득하고, 무엇보다 주민대표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서서 반대하는 상인들과 좀 더 소통했다면 결과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미련이 남는 사업이었다.

3.2.4 해송보도교와 다릿돌전망대

2010년에 수립된 통합마스터플랜의 세부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행단계에서 새롭게 편입된 사업들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던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남았고, 그 남은 예산을 활용할 대체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요트계류시설과 등대경관브릿지 사업을 제외하는 대신 해송보도교사업을 추가하였다.

해운대구는 2002년부터 달맞이언덕 입구에서 송정에 이르는 길이 2.4km 구간에 목재 덱크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2014년 당시 거의 모든 구간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다만 청사포로 진입하는 도로 상부구간만 옛날부터 있었던 자동차를 위한 교량은 있었지만 이 교량에 사람들을 위한 보행공간이 없었다. 달맞이 언덕의 산책로를 따라 송정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을 피해 교량 옆을 걸어가야 했다. 해운대구에서는 이전부터 자동차를 위한 교량 옆에 길이 84m, 폭 3m 규모의 보행자 전용의 해송보도교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필자는 해운대구의 도시디자인위원으로 해송보도교의 설계안에 대한 경관심의에 참여했다가 해송보도교가 18억의 예산이 없어서 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



청사포 진입부의 해송보도교

청사포의 다릿돌전망대

기의 일부사업이 제외됨으로써 남은 예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시와 해운대구 그리고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모처럼 모였고, 필자는 해송보도교의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침 해송보도교의 중간 지점과 양 끝에는 청사포마을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을경관의 시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5년 4월 해송보도교가 준공됨에 따라 관광객들은 달맞이 언덕에서 송정까지 산책로를 안전하게 걸으면서 청사포의 아름다운 마을경관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15년을 즈음하여 부산시의 남구, 영도구, 서구 등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바다 위에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를 건설하는 붐이 일고 있었다. 해운대구에서는 청사포에 길이 72.5m 높이 20m의 스카이워크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43억의 사업비를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의 잔여예산의 전용을 요청하였다. 스카이워크의 난립, 다른 곳에 비해 작은 규모, 태풍의 피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등 여러 가지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폐선된 동해남부선 선로를 따라 가다가 바다 위로 걸어가 동해와 청사포마을 그리고 멀리 송정해수욕장까지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포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2017년 8월 다릿돌전망대라는 이름으로 준공한 이후 2018년 3월까지 40만 명이 방문하여 기대보다는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가 되고 있다.

4. 청사포 도시어촌의 성과와 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는 단순한 시각적 경관사업이 아니였다. 노후한 마을의 공공공간, 상업화로 인한 어촌경관의 상실 등과 같은 물리적이고 경관적인 문제와 함께 상인과 어민들 사이의 갈등, 청사포마을에 대한 신기마을의 소외감, 토박이 주민과 신규유입 주민 사이의 소통부재 등 어촌마을, 특히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상업화되는 도시어촌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경관적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그리하여 청사포가 도시어촌이라는 독특한 장소성과 경관 그리고 공동체를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009년 경관협정사업의 자문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사업으로 이어졌고, 약 8년만인 2017년 공식적으로 사업이 종료하였다. 그리고 그해 7월12일 국토교통부 등이 주최하는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대통령상 수상은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쏟은 주민과 행정 그리고 계획팀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찬사와 경의였다. 이 사업을 계기로 해운대구와 부산시에서 도시어촌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포구 주변과 해안도로변의 경관이 좋아짐에 따라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젊은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횟집과 조개구이 일색이던 상업시설이 개성 있는 카페거리로 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한 세부사업계획의 제외 혹은 변경으로 인해 통합마스터플랜은 세 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서 각각의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검토나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점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어촌이라는 공간 특히 포구와 방파제 그리고 물양장 주변에서 계획되는 사업은 해당 기초지자체 내에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때로는 광역지자체 해양수산 관련 부서와의 협의나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시각적 효과를 가진 스펙터클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주민대표나 단체장의 선호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설계나 시공 등 실제 건설에 참여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화려한 계획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특히, 단체장들은 뭔가 중후장대한 시설의 설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므로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 전문가로 참여했던 필자를 비롯한 계획팀이 통합마스터플랜의 계획 단계에서 실현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가장 클 것이다.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로는 사업의 기획에서 계획 그리고 실행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사업의 실행단계에도 주민들 사이의 입장 변화, 자치단체장과 주무부서 담당자의 변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관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주민과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정작 지속적인 추진체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다.

네 번째 언제 완성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마을 대상 사업의 초기에 모든 세부사업의 위치, 규모, 사업금액을 결정하는 마스터플랜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실감하였다. 마스터플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초기에 합의했던 사업의 취지와 디자인의 일관성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세부사업의 변경과 신설 속에서 '행복한 도시어촌'이라는 초기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 마을의 경관이란 결국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외면화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마을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선행되어야하고, 경관사업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만들어가고자 하는 마을의 경관상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마을경관을 조금씩조금씩 형성해 가는 경관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업인 휴게실
부산시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GOOD
PRACTICE 2

철원

철새 평화타운 스토리

2010-2012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 총괄계획가

2016년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이
문을 열었다. 같은 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누리쉼터상을 수상하고,
어느새 한 해에 1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생태휴양지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건축·철새·생태프로그램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협업하여 이뤄낸
철새평화타운의 초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본다.

II

경관사업 2

철새평화타운 스토리

© 김광수

마을사진

1. 철원, 철새마을 양지리를 만나다

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제안으로 2010년 4월경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총괄계획가를 수락하였다. 5월 어느 날 철원을 방문하였다. DMZ 접경지역 철원을 당시에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교통사정이 지금보다 좋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 철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철원군청 석태문 주임이었다. 그가 작성한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 시범사업'이라는 기획안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보고서이다. 20여 페이지 기획안은 지금 시점에 다시 봐도 창의적이면서도 내용이 탄탄한 계획안이다. 지역을 잘 아는 역량 있는 공무원의 기획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한다.

'철새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양지리를 방문하였는데, 마을의 모습과 특성이 한눈에 이해하는 어려웠다. 지역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후로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분단 이후의 접경지역을 관리해온 정부정책과 지역 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1968년 이후 민통선 북방의 유휴지를 개발하고 대북선전 효과 증진하기 위해 민북마을을 조성하게 하게 된다. 철원 양지리는 1973년 100여 세대가 입주하였다. 2012년 이후는 민통선이 해제되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양지리에 거주하는 주민은 약 80가구 150여 명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최근 하우스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인근 철원평야와 민통선의 존재는 겨울철새가 찾기 좋은 조건이 된다. 양지리는 지구상에서도 귀한 두루미와 재두루미, 독수리와 청둥오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70년대 초 마을 인근 토교저수지가 조성되면서 철새들의 잠자리가 되면서 양지리는 탐조지역을 알려지게 되었다. 1999년 철원군청은 양지리를 철새마을로 공식지정하게 된다. 2003년부터는 마을 소유의 두루미펜션을 오픈하게 운영하기 시작한다. 지역 커뮤니티가 철새 생태관광을 주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두루미

2. 팀을 꾸리다

6월 철원 방문 후 이 일을 함께할 팀을 잘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석태문 주임은 전적으로 공감해 주었고, 팀의 선정을 총괄계획가에 위임하여 주었다. 공공 프로젝트를 수행한 좋은 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데, 철원군의 신뢰가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언젠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온영태 소장님을 만나서 나눈 대화는 이 일을 하는데 방향타가 되었다. 온소장이 해주신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 공간 대량 공급의 시대가 지났다.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를 지나서 질로 전환해야 한다. 공간의 질을 향상하려면 하나하나 섬세하게 기획하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 한다. 모든 프로젝트는 다 조건이 다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 개별 공간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일이 미래 건축도시조경 분야가 가야할 방향이다." 지금도 기억하는 메시지인데 필자는 이후 여러 프로젝트에서도 이 정신을 따르고자 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코디네이션 할 전문가로 서울시립대 김아연 교수를 추천하였고, 학술용역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전문가간의 협업이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김교수와 협의하여 건축에 김광수 교수, 커뮤니티 계획에 오형은 대표, 철새전문가로 김지석 박사, 생태프로그램계획에 이재영 교수를 모시고 연구진의 큰 틀을 구성하였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양지리라는 지역이 지닌 매력이 이 분들이 열성적으로 일하게 한 동인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프로젝트를 처음 보고하는 자리에 지역전문가나 주민들은 연구진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기도 하였다. 아마도 외지 전문가들이 지역의 실상을 얼마나 파악하고 진정성 있게 일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가능한 한 현장을 중시하고 주민들과 깊게 소통하고자 하였다.

철원프로젝트 전문가들

이러한 과정에서 철원군도 연구진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힘이 되었다. 지역프로젝트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한다.

3. 주민과 만나다. 협동 작업을 하다

연구진에게 철새를 만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2010년 어느 겨울날. 새벽잠을 제치고 일어나 토교저수지에 올라갔다. 아침 6-7시 사이 30여 분 동안 저수지 위로 무수한 새들이 비상하였다. 수만 마리의 청둥오리가 내는 소리와 그들이 연출하는 군무는 압도적이었고 강렬했다. 연구진 모두 새들이 만들어내는 광경에 푹 빠져들었다. 이후 양지리 주민들과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그들이 원하는 바램들을 경청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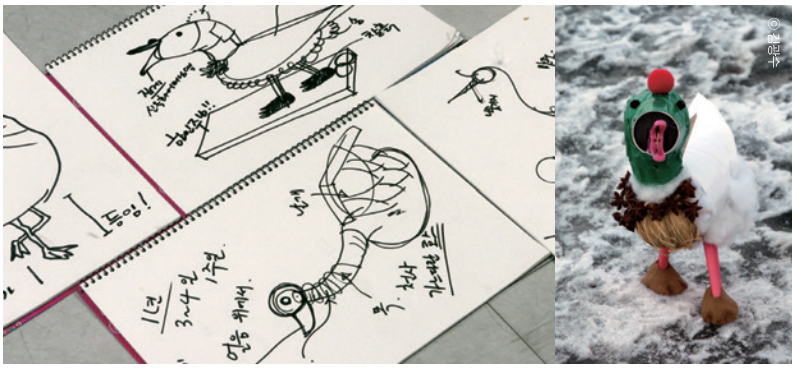
여러 연구진들이 노력한 결과 1차년도 시범사업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11년에도 후속 사업을 하였다. 후속 사업에서는 건축과 조경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주를 이루었고, 소프트웨어 연구팀은 주민 역량 강화나 생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지리 주민 대상으로 지역 고유 메뉴개발 실습과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철새캠프는 특히 새로운 시도였다. 2차년도 시범사업에서는 마을브랜딩을 위하여 디자인전문가 이장섭 대표가 참여해 주었다. 지역주민들과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브랜드 시안과 지역상품화 할 수 있는 캐릭터와 아이템을 찾아내었다.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일하는 일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워갔다. '문화기반시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하였다. 초기에는 철새 탐조 사전에 기초지식을 습득 하에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담는 공간이며 탐조 후에 이

주민참여 지역브랜드(캐릭터 스케치)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설계

주민참여 지역브랜드(로고, 굿즈, 캐릭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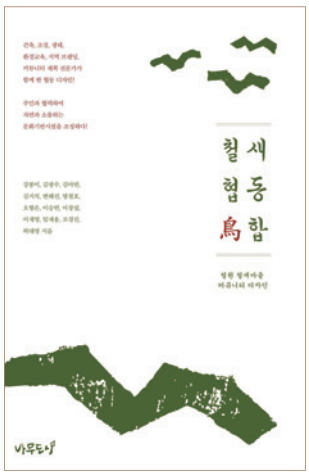
주민참여 작품

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한 연구진은 주민들과 만나면서 나름대로의 문화기반시설의 개념을 찾아갔다. "논농사를 포함하는 경작이 양지리의 생활문화이다. 농지는 주민들의 생활기반이고 사람들을 위한 곡식을 경작하는 생산지인데, 이 논 때문에 철새들이 찾아온다. 논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새까지 보듬고 있는 것이다. 토교저수지의 경우도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인데 이곳에 철새들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접점에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양지리 철새마을의 특징이다." '문화기반시설'은 독특한 지역 특성을 담아내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터전이 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 주었다. 연구진간의 상호 학습을 통하여 이 프로젝트의 희미한 성격은 시간이 지나며 보다 또렷해지기도 하였다.

총괄계획가로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설계'와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공간설계'라는 점을 이 프로젝트의 지향점을 설정하였다. 당시 국토부의 담당사무관도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의 정신이 '사람중심의 디자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연구진이 자신 있게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공공 공간을 설계하면서 대부분의 시설의 콘텐츠의 충분한 고민 없이 공간계획과 설계를 한다. 설계과정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개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공공공간이 완공된 후 이용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불편한 공간을 감내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철새 탐조공간과 같은 전문화된 공간 프로그래밍은 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연구진은 실제 철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이에 요구되는 공간 조건과 규모를 조정해갔다. 외부 공간 설계에서도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를 활용한 놀이를 외부 공간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다영역간 프로그램 리서치 작업을 통하여 콘텐츠를 담는 설계를 시도해 보았다. 많은 시도를 해보았기에 우리 프로젝트가 특수한 공간 공공건축 기획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4. 책을 만들다. B플랜으로 가다

2차 년도 사업이 끝날 무렵 연구진에게 닥친 문제는 설계안을 실현시킬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소식이었다. 국토부 예산은 계획과 설계에 한정해 있기에 철새커뮤니티센터의 시공비를 마련하는 일은 불투명했다. 연구진이 짜낸 묘안은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열고 프로젝트 스토리북을 출간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일, 모두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행히 철원예술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아트선재에서 전시회공간은 흔쾌히 허락해주었다. 출간의 경우 나무도시가 프로젝트 의미를 공감하고 출판에 협조해주셨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두 한 꼭지씩 글을 썼다. 건축공간연구원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염철호 박사에서부터 디자인검토위원인 임재용, 변혜선 위원도 힘을 합쳐 주었다.



도서_철새협동조합

폐교모습

마침내 2012년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시회를 열고, 여기에 맞추어 '철새협동조합'이라는 책도 출판되었다. 특이한 판형의 책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나 잘 팔리지 않아서 출판사에게 미안함 마음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다만 사회운동가와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드문드문 읽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며 위안을 삼고 있다. 제목은 '철새협동조합: 철원 철새마을 커뮤니티 디자인'이다. 철새를 매개로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일하였고, 협동조합이라는 말에는 철새마을의 미래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로 생각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1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마을 전체의 공간 재생계획과 폐교 활용의 계획안이 범위에 포함되었다. 연구진 내부에서 광역적 공간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과업 내용에 포함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폐교의 활용은 철새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된 후 2단계 계획으로 생태학교를 여는 구상을 하였다. 2차년도 사업에 끝나고도 한동안 시공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되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서 행정자치부 예산사업으로 철새 커뮤니티 센터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희소식이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사용하는 조건은 폐교 리모델링에 한해서였다. 철원군청와 연구진은 B플랜을 택하기로 하였다. 철새커뮤니티 센터 신축 대신 양지리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철새학교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다시 새로 작업을 해야 했다. 달라진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폐교활용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었다. 미래를 상정하면서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일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계 계약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나, 철원군청이 연구진을 믿고 의지해 주어서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토부의 지원도 프로젝트의 끈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었다. 2013년 11월 증개축설계를 시작하였고, 이를 마치고 2014-2015년 시공 절차를 진행하였다. 건축 설계자의 원하는 바대로 디자인감리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시공 디테일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구상안은 골격대로 완공되었다.

2016년 11월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을 문을 열게 되었다. 철원군청에서 이 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다. "철원군 DMZ 철새타운 및 철새도래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양지리 주민에게 운영을 맡길 제안도 하였다. 그러나 양지리 주민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유는 규모도 너무 크고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주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페만 현재 양지리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철새평화타운 외부공간은 조류 병원으로 운영된다. 철원군 조류보호 협회에서 다친 조류 등을 치료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설은 완공되었지만 초기 계획 구상대로 모두 실현되지는 못했다. 예산이 부족하여 외부 공간 조경을 아예 실현하지 못했고, 3동의 별채 연구동은 군청이 펜션으로 기능을 바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B플랜이 준 장점도 있다고 본다. 폐교 리모델링하는 것이 새로운 신축 건축물을 세우는 것보다 환경적으로 자원을 덜 소모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5. 수상이라는 작은 위안 그리고 성공적 운영

철새평화타운은 2016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누리쉼터상장관상을 수상한다. 심사평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철새평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과 토론하고 고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주체의 창의적 발상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은 지역에 무수히 버려지고 있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한다." 수상 소식은 그동안 연구진이 노력한 것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

이후 나는 철원에 자주 드나들면서 여러번 탐조관광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참가비를 내게 되면 일정 액수를 철원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되돌려준다. 상품권으로 철원에서 식사를 하거나 자동차 연료를 주입하곤 한다. 실질적으로 철새평화타운 탐조관광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는 셈이다. 여러 팀과 탐조관광으로 하였는데 참여한 모든 분들이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하며 즐거워하곤 하였다. 2-3시간 동안 민통선 내에서 진행되는 철새관광은 해설사가 동행해주면서 설명해 준다. 망원경도 빌려주는 데 이곳저곳에서 두루미를 찾고 보는 것은 짜릿한 체험이다. 개별적으로 관람하게 하는 이길리 탐조시설에서도 두루미가 하천변을 날고 착지하는 광경으로 목격할 수 있다.

철새평화타운의 교육공간을 여러 용도로 활용하였다. 대학생 평화캠프 워크숍, 국제평화심포지움 철원답사 베이스캠프, DMZ 열차 투어 철원관광 거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였다. 철원을 소개하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철새평화타운에는 곳곳에 철새 사진들로 채워져 있고, 다목적 공간은 철새에 관한 전시도 잘 구성되어 있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철새평화타운에서 2018-2019년 약 1만 명이 두루미 탐조를 했다고 한다. 2018년부터는 생태체험교실 뚜루교실을 운영하면서, 주 2회 철원군 지역 내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환경 체험 교육이 펼쳐진다. 철새평화타운은 지역의 사회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8년 환경부가 지정하는 생태관광지역의 26선에 뽑히기도 하였고, 2019년 고향 생태휴양지역 10곳 중 한 곳으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철새평화타운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벌어지고 있거나 예고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철새가 안정적으로 이곳으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하우스 농가가 확대되면서 철새들의 서식환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근 철원군에 많은 축사가 들어서면서 조류의 이동경로가 변경될 위험에도 처해 있다. 민통선이 점점 북상되면서 소음에 민감한 철새들의 서식환경에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 평화무드로 이 지역이 민통선이 없어지고 개발이 진행되면 철원의 상징인 철새는 더 이상 찾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통제된 조건이 만들어진 청정지역과 철새의 서식지는 향후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그 운명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두루미센터가 철새평화타운 부지 내에 들어설 계획이다. 새로운 시설이 기존의 공간과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철원군청과 협력하여 국제두루미센터 신축계획을 잘 조정하여 두 시설이 시너지효과를 나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6. 이어지는 이야기

2016년에 철새평화타운이 완공되면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하나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철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철새평화타운이 계기가 되어서 10년을 다니다 보니 어느새 지역 전문가가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철원과 DMZ는 내 연구의 주제가 되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셈이다.

2016년 문화부 지역문화컨설팅 프로젝트를 아트선재와 함께 했다. 아트선재는 2012년부터 철원을 중심으로 리얼 DMZ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다. 리얼 DMZ 프로젝트는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예술가와 학자들의 함께 분단과 경계의 문제를 연구하고 예술적 작업을 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2016년에는 철원 지역 임시적으로 설치되던 예술작업을 넘어, 몇몇 장소에 영구적 작업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 리서치와 기획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몇몇 작품들이 들어섰고, 이 인연을 계기로 DMZ 예술작업 기획과 지역 경관 연구를 하게 되었다.

2017년부터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지원을 받아 '평화예술프로젝트'라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연구논문을 내기도 하였고 여러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전시를 하기도 하였다. 철원 구시가지 장소기억 재구성 연구, 전망대 도큐멘테이션 프로젝트, 철원 가이드북 제작, 접경지역 소리풍경 전시도 그러한 예이다. 2019년에는 'DMZ' 전시 큐레이팅에 참여하였고, 전시의 일환으로 "DMZ 쌀, 철원 농민 삶의 이야기" 연구원들과 함께 준비하였다. DMZ 전시도록의 글에서 필자가 함께한 여러 예술 프로젝트의 관점을 경관적 접근이라 정리하고 있다. 철원 작은 공간의 경관조성 프로젝트가 철원을 포함하는 DMZ 지역경관 연구와 경관예술 프로젝트로 확장하고 진화해 나가고 있게 된 셈이다.

연구실이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 석박사과정생 철원 연구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철원의 중심으로 한 박사학위논문도 등장하였고, 석박사학생들 중심으로 DMZ 홍보브랜딩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도 하였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전문가들과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참고한 글

- 김지나 (2018),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에 통해 본 DMZ 접경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국토연구』 9호, 113-133.
- 조경진 (2012), "철새협동조합을 펴내며" 『철새협동조합』, 나무도시, 8-15
- 조경진 (2018), "디엠지 생명환경을 탐침하다, 경관적 접근" 『DMZ』 문화역 서울 284

철새커뮤니티_원 계획안_토교저수지 주변에 신축

철원 관련 출판물

문화역서울284_DMZ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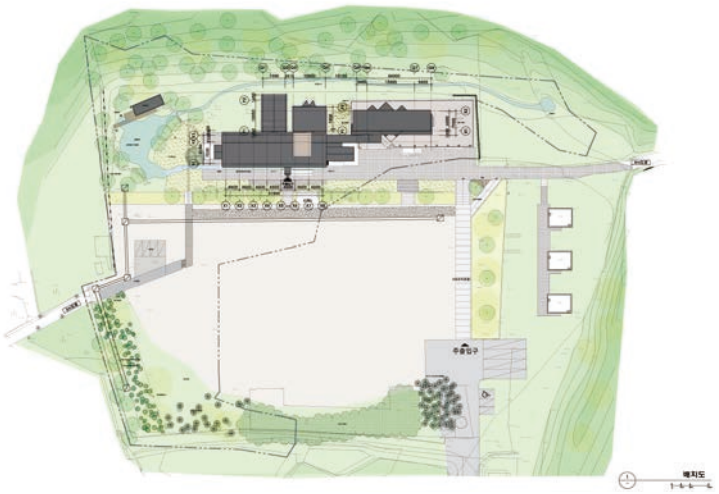
"DMZ 철원, 소이산 풍경캐비넷" 모음아트버스 이동식 전시, 2020년 7월

DMZ 철새평화타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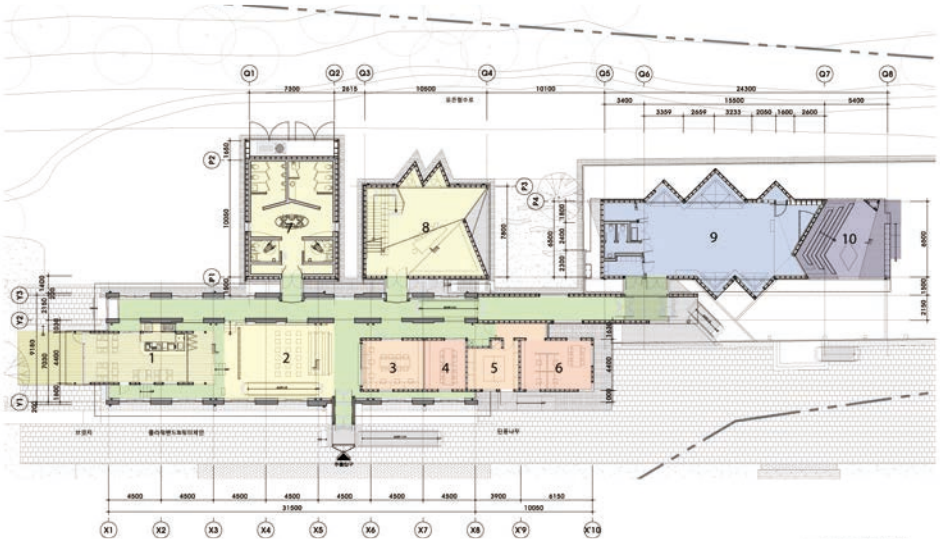
DMZ 철새평화타운 외부
ⓒ 신경섭

DMZ 철새평화타운 내부
ⓒ 신경섭

ⓒ 김광수



DMZ 철새평화타운 배치도



DMZ 철새평화타운 평면도

ⓒ 조경진

ⓒ 조경진

탐조관광

10년 만에 다시 모인 철원프로젝트 팀 간담회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장소
갤러리 더 봄
(서울 성동구 서울숲2길 42)
(2020년 5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접경지역인 철원의 풍경을 재조명하는 'DMZ 景, 철원' 전시)

참석자
조경진(서울대학교 교수)
김아연(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광수(건축사사무소 커튼홀 소장)
김지석(서울시청 과장)
김광진(철원군청 문화관광해설사)
김일남(철원군청 문화관광해설사)
이춘미(철원군청 문화관광해설사)
이상민(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심경미(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재(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송윤정(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Q]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A] 철원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약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이야기를 책에 담아 독자들에게 공유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경진

철원, 철새마을 양지리의 현황

[Q] 철새평화타운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조경진

[A] 현재 철새평화타운은 과거 초등학교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다. 2016년에 오픈하였는데 당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약 1년간 운영하지 못했다. 이후 안보관광, 탐조관광 등 철원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철새평화타운을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19년 말 돼지열병 발생, 2020년 코로나19로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해설사

[Q] 관광이라는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상민

[A] 철새평화타운이 생기기 전에는 대부분 안보관광을 목적으로 찾는 관광객으로 계절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최근 탐조관광이 활발해지면서 조류를 관찰하기 위한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계절의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철원을 방문하는 목적이나 관광객의 행태가 예전과는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안보관광을 위해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잠시 방문하였다가 떠나는 식이었다면, 요즘은 가족단위의 소규모 관광객들이 생태체험·관찰 등을 위해 방문하는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해설사

[Q]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나?이상민

[A] 철원군에서 작성하는 공식 통계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소득이 늘어났다고 체감하고 있다. 탐조관광 이용료가 15,000원인데, 이 중 10,000원을 지역화폐로 되돌려주고 있다. 이렇게 지역화폐를 되돌려받은 관광객들은 마을식당과 농산물 직판매장 등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돌려받은 지역화폐10,000원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해설사

철새평화타운 이야기

[Q] 당초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었나?편집자

[A] 아니다. 당초 계획은 토교저수지 안에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실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종료된 이후 민통선이 올라오는 여건 변화와 사업비 문제 등으로 인해 계획이 B플랜폐교 리모델링으로 변경되었다. 양지리 지역특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고민해서 만든 설계안이 사라지게 되어 힘들었으나, 사업 초기에 폐교를 활용하자는 대안이 검토되었던 터라 B플랜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여러 전문가와 폐교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폐교 리모델링 기본설계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실시설계를 가격입찰로 진행하여 타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중단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마무리하게 되었다. 국내 법제도상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을 제외하면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감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지리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건축물 품질 향상에 신경을 썼다. 돌이켜보면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일반적인 공공건축물보다는 우수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한다.김광수

[Q] 철새평화타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편집자

[A] 첫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군청 관계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모두 바뀌고 양지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면서 철새평화타운은 준공 후 운영되지 못하고 방치되게 된다. 건축가로서 본인이 설계한 건축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매우 슬픈일인데, 당시 분위기를 전환해보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했다. 첫째 아트선재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둘째 공간문화대상에도 수상하게 되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덕분에 철원군에서도 다시 철새평화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다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김광수

생태환경 이야기

[Q] 철원이 왜 두루미, 다양한 철새들이 서식하는 곳이 되었는지?편집자

[A] 철원은 지리적으로 외부인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인공적인 훼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이런 조건은 철새와 두루미에

게 유리한 서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고, 일찍이 문화재청과 철원군에서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을 하였다.김지석

철원읍 내포리에 위치한 샘통 주변지역을 문화재청이 1973년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했다. 샘통은 겨울철에도 섭씨 15도 정도의 물이 솟는 곳이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로는 안성맞춤인 장소였다. 2008년 샘통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이용하여 특화작물고추냉이 재배를 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철새도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샘통일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당시 지적도 오류로 인해 잘못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길리에 재지정하게 되었다.해설사

지역주민과 공무원, 전문가들이 노력한 결과, 두루미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였다. 문제는 두루미가 증가하고 탐조관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각종 시설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두루미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걱정되는 시점이다.김지석

[Q] 양지리가 두루미의 서식지로서 적합한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편집자

[A]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양지리의 생태환경을 조사한 결과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 한탄강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국제두루미센터가 신축되는 등 개발압력이 미치고 있다. 양지리 뿐만 아니라 DMZ 주변 접경지역은 세계적으로 생태·자연 가치가 높은 지역이지만 개발압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철원군, 양지리가 보유한 우수한 가치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와 마스터플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김지석, 해설사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이야기

[Q] 철원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편집자

[A] 10년 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시 아무런 준비 없이 공공건축물을 짓는 데만 몰두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획을 해보라는 목적으로 이해했다. 당시 이러한 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기존 사업들이 보여주기 식의 공간만들기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공간은 과정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력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데, 철원군은 두루미였다.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 썼다. 이를 위해 학생들을 위한 체류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부녀회와 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만들기 개발, 두루미를 활용한 지역상품을 개발하였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가능했던 일이며, 이 마스터플랜은 주민, 공무원, 전문가 1~2인이 수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가치 있는 것이며, 그래야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김아연

아쉬운점, 바라는점

[Q]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이 있다면

[A] 벌써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개인적인 관심이 컸던 프로젝트인 만큼 지역을 방문하면 항상 아쉬웠던 게 있는데,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전달할 채널이 없다는 점이다.김광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공간을 확장해서 보는 경험이나 시각이 부족해서 양지리에만 집중을 했는데 주변지역이길리 등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프로젝트 후에 이길리를 조사해보니 양지리에는 없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었다. 조금 더 넓게 적용해보면 철원뿐만 아니라 철새가 방문하는 모든 지역을 묶어서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조경진

10년을 되돌아보면 사람이 바뀔때마다 얼마나 프로젝트가 휘청거리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나마 철원은 사업 초기에 전문가들이 기획을 잘 수립하였기에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진행했던 결과물이 잊히지 않고, 다시 한 번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팀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김아연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A]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철원 프로젝트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관계자들의 무한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던 것 같다. 마치 생물처럼 프로젝트가 그래서 거의 숨을 다할 때가 되면 주민과 전문가들이 와서 인공호흡으로 살려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다시 한 번 철원 양지리 프로젝트에 인공호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철원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쏟았던 노력 그리고 경험, 노하우의 씨앗이 남아있으므로 이것을 발아시키기를 기대한다.조경진, 이상민

10년 전 마스터플랜으로 현재 철새마을이 존재했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다. 철원의 중요한 자산인 두루미를 포함한 전체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지속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경관이라고 생각한다.김아연

최근 트렌드는 '로컬이 중요하다!'이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요소는 공간기획, 콘텐츠, 커뮤니티빌딩이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시도해봤던 사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준비해서 달려 나가보았으면 한다. 공간을 만드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하고 콘텐츠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시점이다.조경진

GOOD
PRACTICE 3

인천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2017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정두용
인천광역시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 도시경관담당

인천광역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경관심의 내용과
방법을 익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뒤, 건축·개발사업·경관협정·
공공시설물 등 일곱 가지 사례를 통해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경관심의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III

수요자 중심의 경관심의

1. 인천시 경관심의 제도의 흐름

인천광역시는 2003년 12월에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 4월 3일에 최초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였다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 제23조(도시경관위원회 설치). 당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❶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❷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❸ 경관시범마을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❹ 주민의 경관협정 인정에 관한 사항
❺ 도시경관형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❻ 도시경관상 시상에 관한 심사
❼ 기타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임기는 2년으로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위촉직으로는 시의회 의원, 미술·디자인·조경·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대상으로 13명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경관법 제정 전까지 자치법규를 근거로 매년 3-5건의 경관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위원회를 운영하여 왔다.

2007년 5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심의대상 등을 재정비 하였고, 4대2010. 4. 1.부터는 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였다. 경관법 전부개정2014. 2. 7. 이후인 6대부터는 경관위원인력풀을 48명으로 확대하여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2019년 현재 위원회 운영을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및 자문대상(2019)

구분	내용	
심의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경관계획의 승인
	· 경관사업 시행 승인	· 경관협정 인가
	·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 심의	· 개발사업 경관 심의
	· 건축물 경관 심의	·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 기타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지자체별 별도 규정, 방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자문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행정적으로 시급한 사항: 관계부서간 갈등 등	

2. 경관심의제도의 이해

2.1 경관심의 원칙

경관위원회 위원들은 경관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관법규에 대한 이해를 하여야한다. 경관법, 경관심의지침, 경관계획에 대한 지침, 지자체 경관조례, 지자체 경관계획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관심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공공디자인심의 등과의 심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심의 원칙과 심의이해를 위한 동영상을 2017년에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여 심의 전에 경관심의위원들에게 영상물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경관심의 대상인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유형과 심의시기, 심의규모 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관심의 내용이 기본설계수준인지 실시설계수준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경관심의는 평가나 규제가 아니라 경관향상을 위해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관향상을 유도하도록 심의를 하여야한다. 경관자체가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의 것임을 인지하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찾아가도록 주변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경관적 영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네 번째로, 경관심의를 진행할 때는 경관담당자의 의견제시와 함께 심의 대상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조건부 의결된 의견과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검토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CG나 출력물색상의 일치 등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심의토론과정에서 경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첫 번째**로, 경관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의견제시가 필요하며 **두 번째**로, 심의 내용과 관련 없는 의견,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나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는 무리한 의견, 사업대상지를 벗어나는 무관한 의견 등은 지양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질의

나 토론 시에 개인적인 의견, 모호한 의견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전문분야 외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심의 대상 전문분야를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된다.

2.2 경관위원회 구성

경관법 제31조, 영 제25조, 지침 6-1-1에는 경관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인력풀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8월 경관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강화되었다.

경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에 앞서서 실시하는 지원적 성격의 위원회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원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앞서 경관을 고려한 계획적 개념이 포함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경관심의 의결내용을 관련 위원회와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다음 행정절차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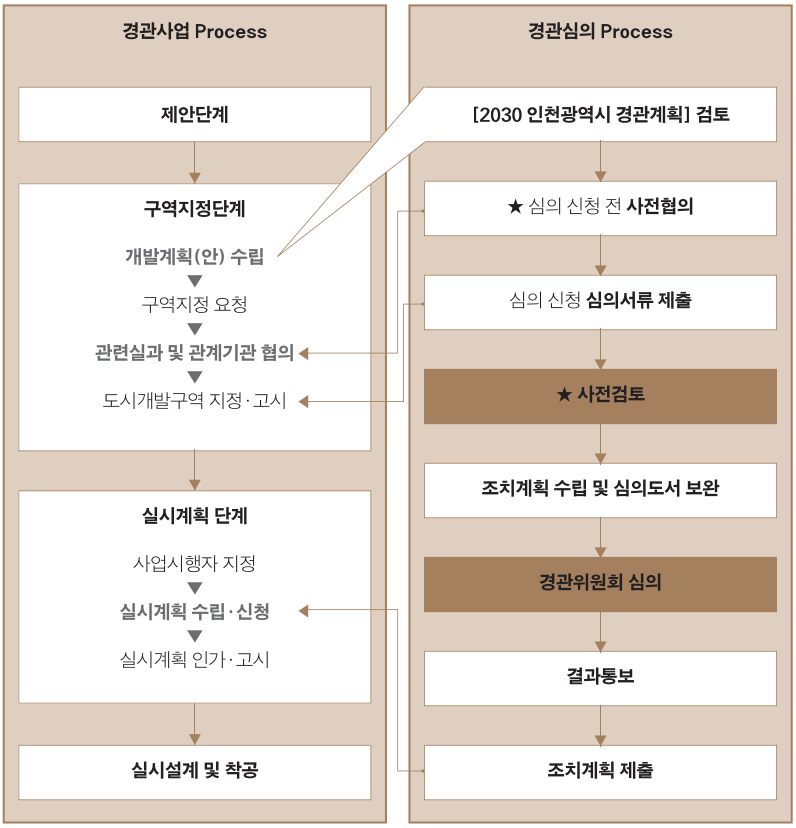
경관위원회는 보통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장을 맡음으로서 위원회의 위상을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관위원회는 경관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심의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조직적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경관위원회 담당 부서가 행정조직상 특정 국 또는 부서에 한정될 경우 원활한 경관심의 기능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을 주관하는 국에 포함될 경우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직무가 경관을 관리해야하는 직무보다 우선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위상을 갖는 다른 실국의 개발계획을 경관관점에서 관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2.3 사전협의(경관심의 담당자)

사전협의 단계는 안건심의를 시작하기 전단계로, 경관심의 담당자가 불필요한 도서내용을 정리해 주고 반대로 검토에 불충분한 내용은 보충하도록 하는 등 제안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세심하게 안건내용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단계이다.

경관심의부서는 효율적인 경관 심의 준비를 위해 사전협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을 사업부서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있다. 이 사전협의 절차는 사업부서가 최종 설계안이 도출되기 이전인 초기단계에서 경관위원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협의 절차의 내용수준은 설계 최종안이 도출된 이후에 경관 심의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 설계(안)이 도출되기 이전의 초기 단계'대안'이나 '계획 설계' 등수준으로 준비하면 된다.

경관심의 절차 중 사전협의



3. 인천시 경관위원회 구성과 심의절차

3.1 경관위원회 구성

인천시 경관위원회는 상정안건 내용을 중심으로 경관계획, 경관협정, 경관조례 등을 심의하는 본위원회위원장: 균형발전정무부시장와 경관사업, 각종 개발사업, 공공건축물 등을 심의하는 소위원회위원장: 주택녹지국장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3.1.1 경관본위원회

본위원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경관위원회 소집, 의장 역할하고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구성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경관위원회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참석위원 명단 및 회의결과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3.1.2 경관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소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개편하고, 안건특성에 적합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속국장으로 하고 있다[1]. 소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표결에 부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참석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합의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참석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주택녹지국이 신설되고 원도심재생조정관이 경관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어 당연직 4명[2]과 관련학회, 전문기관, 지역대학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경관위원회제9대, 총 49명를 구성하고 있다. 재구성시에는 2년 임기의 3회총 6년 연속금지[3], 위원회 참여율, 개인업무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2020년 경관위원회 인력풀(인천광역시)

구분	계	공무원	의회	건축	도시	디자인	경관	조경	색채	조명	교통
8대	49	3	1	10	8	6	5	5	3	6	2
9대	49	3	1	8	7	8	5	4	5	6	2
증감	-	-	-	-2	-1	+2	-	-1	+2	-	-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구성 체계(인천광역시)

구분	본 위원회	소 위원회
역할	정책적, 종합적 성격의 안건심의	특정분야 사업에 대한 안건심의
위원장	지정위원 중 호선(당연적, 행정부사장 급)	지정위원 중 호선
구성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	7명 이내
구성방법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	“좌동”
회의개최	안건발생 시	월 1~2회
심의사항	· 〈법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법제13조〉경관계획의 승인 · 〈법제21호〉경관협정의 인가	〈경관 소위원회〉 · 〈법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 〈법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법제16조〉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 〈법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1. 소위원회는 매회 호선을 통해 위원장을 선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경관 본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소속 국장이 하도록 하여 매번 소위원장 호선절차를 생략하였다. 이를 통해 경관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행정의 연속성, 타 위원회와의 차별성과 연계성 등을 개선하였다.
2.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원도심재생조정관, 주택녹지국장, 시의원
3. 자치조례위원회운영 규정

자문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및 경관계획(시, 군, 구)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비고	(개의 및 의결)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수권소위)	

3.2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사업부서는 경관위원회에 경관심의를 요청할 때 경관심의 신청서, 경관심의 도서, 경관체크리스트를 경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부서는 경관심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상정예정 안건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여부, 상위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안건 유형별 경관체크리스트적합성 등을 체크하여 1차적인 보완을 한다.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는 경관심의 신청 → 경관위원회 개최 → 심의 결과 도출 → 심의 의견 정리 → (재심의) → 심의 결과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심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2.1 심의접수 전 안건 사전협의

사업부서는 안건접수 전에 경관심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안건접수 전에 사전협의 도서검토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토목적은 협의도서에 대한 완성도 제고와 함께 심의수준을 높이고 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심의도서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사전검토를 통해 디테일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심의도서 작성에 대한 막연함과 모호함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다.

경관안건접수는 매월 20일까지 공문으로 접수를 받는다. 안건접수 후 안건이 확정되면 경관위원회 개최일정을 내부 일정조율을 거쳐 확정시킨다. 이때에는 매회 상정안건 특성에 따라 경관 인력풀 중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심의위원은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2.2 경관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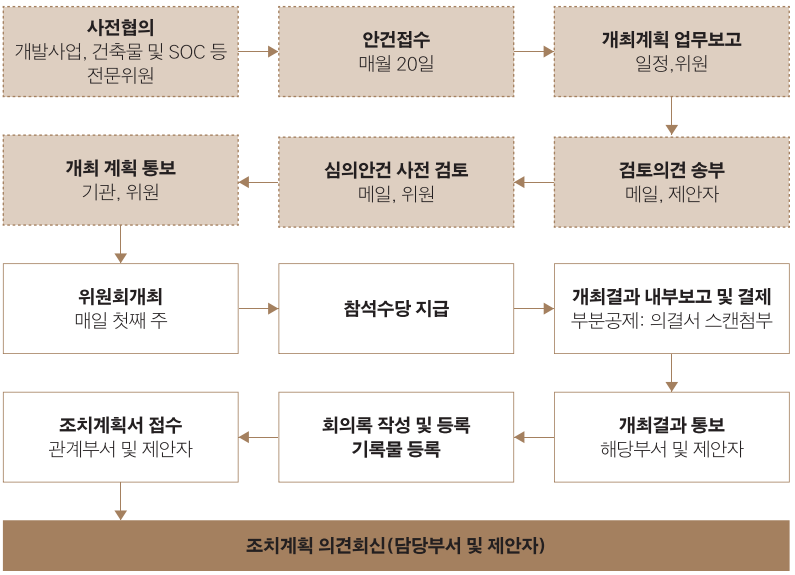
심의위원이 결정된 후에는 다음 단계인 심의위원들에게 사전검토의견을 받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 절차에서는 위원들에게 안건을 메일로 배부한 후 1차적으로 5-7일 동안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사전검토의견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내준다. 사업부서는 심의 당일

에 보완 조정된 내용으로 발표를 한다. 사전검토의견을 통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 불충분한 자료는 심의당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서 내실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 사전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심의 전날까지 보완된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각 위원별 사전검토 의견란에는 위원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번호로 표기하고, 공통된 의견이나 비슷한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하나로 정리하여 반영여부를 비고란에 기입하면 된다.

경관위원회 심의절차(경관심의 운영지침 5-2-1)

경관심의 신청	· 사업부서〉 경관심의 부서 -제출서류: 경관심의신청서, 경관심의도서, 경관체크리스트 * 사전검토를 거친 경우 사전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제출
경관위원회 개최	· 경관심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 * 사전검토를 실시한 경우 사전검토위원 2명 이상 참석 -심의방법: 객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검토 : 국토공간 계획지원네계(KOPSS)의 경관계획지원모형 활용
심의결과	·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반려 중 하나로 정함 * 사전검토를 실시한 경우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의결 중 하나로 정함
심의의견 정리	·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종합 조정 - 조건과 재검토 요구사항은 사업자의 부담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것은 지양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
재심의	·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구성 · 종전 심의결과와 일관성 유지
심의결과 처리	· 경관심의 부서: 심의결과 및 위원명단 공개 - 기간: 심의 개최 후 10일 이내의 위원명담과 회의결과 공개 - 방법: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 준수 · 사업주체: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경관심의 부서에 제출

인천시 세부 심의행정절차(인천광역시, 2019)



3.2.3 경관심의 개최

경관심의를 요청한 사업부서에서는 경관심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경관심의 도서[10부], 경관체크리스트를 경관심의 담당자에게 사전에 제출한다.

경관심의 당일 경관위원회 간사 또는 서기는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게 심의 시작 전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 내용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사전설명을 함으로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심의 당일 사업부서는 사전검토 내용을 공통된 의견 또는 상충된 의견 등을 종합의견으로 정리하여 심의 당일 미반영과 부분반영 부분만 발표토록 하여 시간을 단축시킨다. 당일 제안부서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충분하게 한다. 이는 대상안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데 활용 한다.

건별 안건에 대한 설명은 사업부서장이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위주로 하되, 이때 미반영, 부분반영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안내한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용역사가 출석하여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의견서 작성 예시[인천광역시]를 보면 인천시에서는 분야별 경관심의 담당자가 각 심의위원별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사업부서에게 보내주어 심의 당일에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하고, 심의 당일에는 원활한 경관심의를 위해 각심의위원별 검토내용을 정리한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심의 당일에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다.

다음으로 경관전문위원이 중점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안건 검토 시 관련법, 규정 등에 대한 세부 설명과 함께 심의에 필요한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경관위원들에게 보고한다. 경관심의 의결을 하는데 있어 관련법에 따른 행정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담당자의 참석은 필수이다.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시에는 사업부서와 참가한 용역사를 대상으로 궁금한 점, 특히 사전에 검토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다. 질의 응답이 완료되면, 사업부서와 용역사를 퇴장시켜 심의위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과정에서 추가 질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회의실 밖에 대기토록 하기도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심의 의결서를 전달받고, 토론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바탕으로 위원장은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를 선포한다[경관위원회 심의당일 운영].

사전검토의견 절차

◌ 심의 전 ○ 심의 당일

1차 검토 · 사전검토에 대한 의견 · 불충분 자료 보완 2차 검토

안건배부 → **사전검토의견** →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심의도서 보완 → **미반영 및 조치계획 만 확인 검토**

심의도서검토

심의도서초안

↓

심의도서검토
· 형식적 분석내용 삭제(간결하고 핵심사항 표현)
· 검토 시 필요한 추가적인 분석자료 첨부
· 조망 시뮬레이션 객관성 및 적절성 검토
· 현황 분석 및 문제점 / 기본방향 설정 검토
· 기타 위원회 주요 지적 사항 보완조치

↓

'심의도서검토'시 주의 사항은…
긴급, 주요사항 등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진행

↓

심의도서보완
완성도 제고

↓

심의안건접수

경관심의위원선정

안건상정결정(매월 20일 마감)
회당 상정안건이 6건 이상일 경우 2회로 구분(분야별) 개최 검토

↓

위원전문분야 선정 결정
건축, 도시, 조경, 색채, 조명, 디자인 등
안건특성에 따라 구성

↓

재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기존 참석위원(2/3)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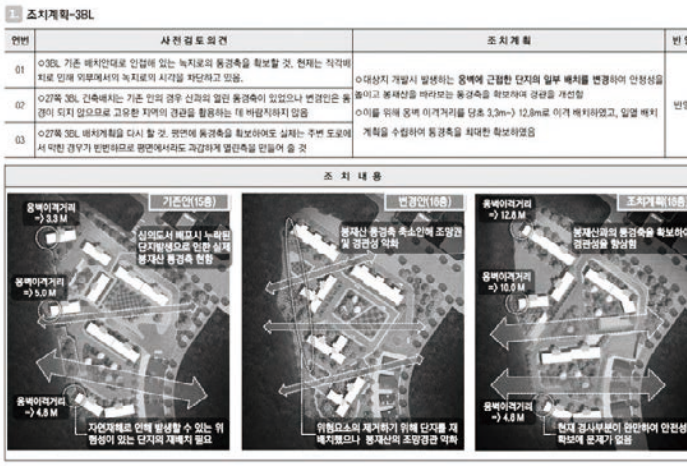
↓

위원구성(7인 이내)
전문분야별 위원 인력풀 중 회의 참석 여부 조회

↓

안건 배부(이메일)
정해진 날까지 검토요청(5~7일 소요) *안건검토착안사항 배부

심의도서 조치계획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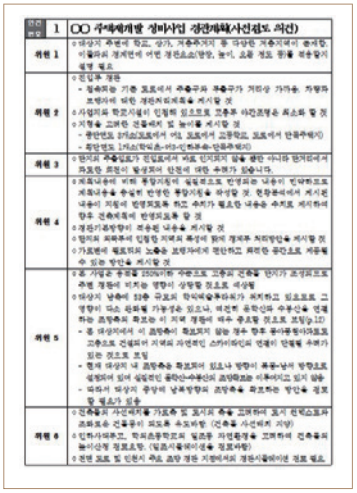
사전검토서 작성예시(인천광역시)

2016년도

제○회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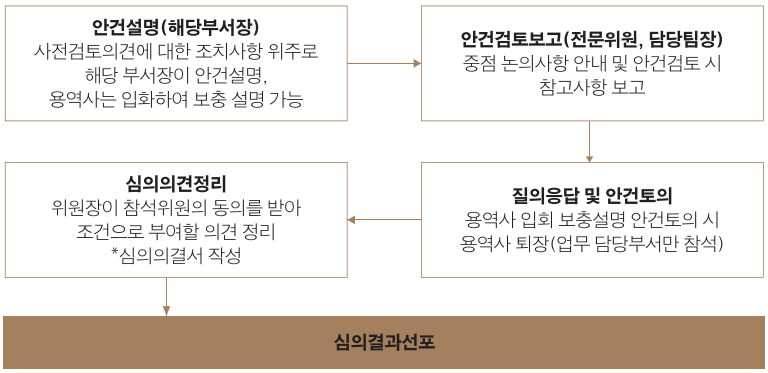
심의위원 사전검토서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안건 번호	1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관계획(사전검토 의견)
위원 1		○ 대상지 주변에 학교, 상가, 저층주거지 등 다양한 저층지역이 분포함. 이들과의 경관연속성 검토 필요
위원 2		○ 건축계획 - 정비여건 기존 도로에서 주출구와 부출구가 거리상 가까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경관시뮬레이션 제시할 것 ○ 사업지의 학교시설이 인접해 있으므로 고층부 사선권역을 최소화 할 것 ○ 지형을 고려한 건물배치 및 높이를 제시할 것 - 주변변도 1지점(학교)에서 1지, 도로에서 고층학교, 도로에서 단독주택지) - 주변변도 1지점(학교)에서 1지, 도로에서 고층학교, 도로에서 단독주택지)
위원 3		○ 단지의 주출입로가 전입로에서 바로 단지되지 않을 경우 다니와 단지내에서 차도와 보행이 일상적이 안전이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 4		○ 외곽나무이 비탈 투입지점이 심토로고도 단절되는 나무이 단지내으로 지정되는을 유일한 반영한 투입지점을 마련할 것. 경관분석에서 제시된 나무이 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추가가 필요한 나무을 추가로 제시하여 향후 건축허가에 반영되도록 할 것 ○ 경관기본방향이 제시된 나무을 제시할 것 ○ 법적의 외곽부이 인접한 지역의 특성이 없이 개성부 처리방안을 제시할 것 ○ 가로변이 획일적이 고층을 경험자이에 제한하고 파리한 중간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위원 5		○ 층 사업은 층수를 25층이하 수준으로 고층과 건축을 단지가 조경으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대상지 남측에 인접 구로의 한국비술투자로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이 미소 라하될 가능성은 있으나, 비전트 유학산과 수부산을 연결하는 조망축의 확보는 이 지역 경관이 따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 중 대상지에서 이 조망축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향후 용이용동이라도로 고층으로 건설되어 지역의 자연적인 스카이라인의 연결이 단절될 수에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대상지 내 조망축을 확보하여 있으나 방향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용한산-수부산의 조망확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상지 중앙이 남북방향의 조망축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위원 6		○ 건축물의 사선제한을 가로측 및 도시의 측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으로부터 조화로운 건물들이 되도록 유도바람. (건축물 사선제한 지양) ○ 입하사례로, 학교존중학교의 일조권 저감방안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으로 (일조시뮬레이션을 적용바람) ○ 본변 도로 및 인접지 주도, 교량 경관 지정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필요.

경관위원회 심의당일 운영



안건심의결과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반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결한다. 안건심의 결과 처리 시에는 심의 결과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재검토의결, 반려와 조건부여가 필요한 의견을 서기 또는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위원장이 검토 후 정리하여 발표토록 하는 것도 회의 시 위원장의 부담을 줄여 주고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조건부의결의 경우 내용은 명확히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참석위원의 동의를 거쳐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재심의의 경우에는 심의 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심의로 인한 사업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심의 시 가급적 당초 심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재심의시 종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건검토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서 제출

심의결과서는 경관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제안부서로 공문으로 통보한다. 안건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주체는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경관심의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심의신청자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심의신청자 → 경관심의 부서하여야 한다. 경관부서에서는 심의의결 내용이 부적합 하거나 조치계획이 미흡할 경우 심의신청자에게 보완 통보를 한다. 만약, 추가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조건부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의견을 제출한 심의위원 또는 참석위원 전원에게 조치내용에 대한 적합성을 메일 또는 전화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조치계획서의 내용은 추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부서 협의 시 경관부서는 이행여부를 검토하는 근거 및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치계획 내용은 행정절차상 다른 위원회에 안건상정 시 포함되도록 조치위원회간 연계하여야 하고, 관련부서에도 통보하여 동일안건에 대한 위원회 결과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경관위원회 담당부서는 경관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경관위원회 심의운영지침5-2-1 (6) 심의결과 처리지침2018. 6. 4. 에 의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조치계획서(※별지)를 작성하여 경관심의부서에 제출하고 각각의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정리하여 표기하고 필요시에는 조치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도면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5. 마무리

인천광역시에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2004년부터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 역사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1999년부터 전문직으로 인천시에 들어와 경관계획, 경관조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운영, 군구 경관업무지원 등 경관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관위원회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 입장에서 접근하기 쉬운 경관심의 방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건축, 개발사업, 경관협정, 공공시설물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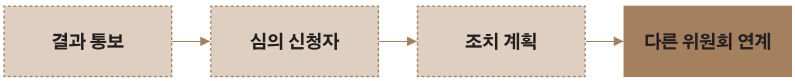
경관위원회운영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가 주요하다. 인천광역시 경우, 건축 및 SOC부분과 계획 및 개발사업 2명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이 심의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을 하여 제출안건 자료를 보완하는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 안건을 심의에 상정하기 전에 제안부서와 제안자가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함으로써 제출도서 내용을 보완하여 경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사전협의를 통해 상정안건 내용을 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해 줌으로써 조건부의결 또는 재검토 의결되는 상황을 사전에 걸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전협의 때에는 내용과 절차가 다른 각종 개발사업,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보완하게 해 줌으로써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상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들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이 인천시가 경관행정대

상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기존 행정의 문턱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제안부서 및 시민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경관행정이다. 이를 업무담당자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상담을 하고 상담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직접 대면설명을 통해 제안자가 미쳐 놓치는 부분까지 안내해 줌으로써 시간절감과 함께 막대한 소요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행정절차뿐만이 아니라 인허가에 필요한 중요 내용까지도 상담에 응하고 있다. 그래서 경관행정은 일반적인 행정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중 경관심의 대상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경관자문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관법 개정을 통한 보완과 각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원활한 지자체 경관행정운영을 위한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경관센터』를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지자체 경관행정을 지원해야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경관조례 제정 및 개정, 각종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에 대해 지자체 경관행정에 전문가 파견 및 지원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근래에 들어 도시재생 뿐만이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경관디자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센터의 설치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결과통보 및 조치계획



다른 위원회 안건상정 시 경관위원회 의결사항 및 조치계획을 첨부하도록 함

조치계획서(※별지) 작성사례(인천광역시)

구분	심의의견내용	조치계획	페이지	조치여부
건축계획	1, 자연지형과 어울리는 부지조성을 검토하고 감경인 위원에게 자문을 받기 바람.	1. 사업부지의 건축물 배치는 계곡지형의 경사 및 표고를 분석한 후 지형훼손이 가장적은 완만한 지형부분에 건축물을 배치한 계획임. 남측 만월담과 독립성이 확보된 몸안담 조성을 위해 대상지 전면에 지형에 순응하는 완충녹지를 주성 주변등산연계 및 공간의 아늑함이 조성하도록 식재계획 및 우측부분의 지형계획을 조정 반영함.	02~06	반 영
태양광 패널계획	2, 패널은 건축물 외벽재질과 색상이 어울리도록 조정	2. 현재 생산중인 패널의 종류에서 건축물 외장재와 유사 칼러의 패널을 적용하는것은 변경이 힘듬. 대안으로 태양열 집열판의 외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판넬의 설치 경사도 및 높이를 변경하며 건축물 옥상 바닥 형태와 일치되게 배치함.	07~09	반 영
진 · 출입구 주변 보완	3, 진 · 출입구 주변 동선 조정 및 식재보완	3. 진 · 출입구 주변 동선을 지형의 순응하는 형식으로 변경하여 접근성을 향상함 또한 그늘식재 와 함께 휴게공간 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조경계획으로 보완함.	10~11	반 영

C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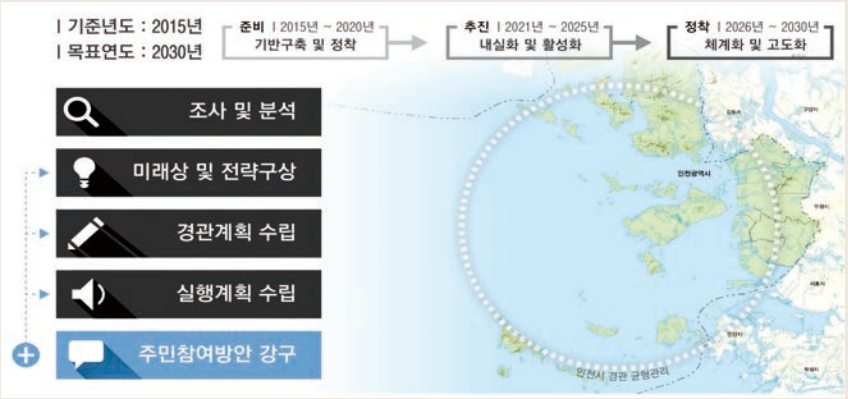
경관계획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1,047km² 2016년인 8개구, 2개군, 129개동, 168개 도서를 대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준비기간2015-2020, 추진기간2021-2025, 정착기간2026-2030의 3단계로 구분하여 5년 단위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수립하였다. 이 경우 경관위원들에게 받은 사전검토의견은 총 59건이었다. 이중 반영 32건, 이미 반영 15건, 부분반영 6건, 미반영 6건이 있었다. 미반영 중 중요한 것은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이미 경관구상 시 나온 이야기를 전문가회의, 연구진 협의,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정리하였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 기존 설정 구역을 확대 지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관련 전문가의견을 반영하여 구역계를 조정하였고, 실행계획 및 계획내용에 추가로 보완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관위원들에게 설명을 통해 정리되었다.

경관계획 사전검토의견 반영사례

계획내용 구분	사전검토의견	반영	이미반영	부분반영	반영못함
경관계획의 위계	2건	2건	-	-	-
경관현황분석	2건	-	2건	-	-
경관기본구상(미래상 및 목표, 추진전략, 경관구조 설정)	13건	10건	2건	-	1건
경관권역 계획	11건	2건	6건	1건	2건
경관축 계획	2건	1건	1건	-	-
경관거점 계획	4건	2건	1건	1건	-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6건	4건	-	1건	1건
기타경관관리계획 계획(조망점, 물리적 경관자원)	2건	1건	-	1건	-
실행계획	7건	3건	2건	1건	1건
경관가이드라인	4건	3건	1건	-	-
계획내용 추가	2건	-	-	1건	1건
오탈자 수정 및 별도설명사항	4건	4건	-	-	-
총계	59건	32건	15건	6건	6건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범위

※출처: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료

Case #2

사회기반시설 1

소래철교

본 안건에 대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인 소래철교에 대하여 디자인공모를 통해 당선된 안에 대해서 철교 본연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장식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디자인개선요구와 함께 소래철교 원형을 최대한 유지복원하고 보행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디자인개선을 통해 보전과 개선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위원회의견을 설계자가 수용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인천시 남동구 소래철교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출처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료

심의 전

심의 후

심의 전

심의 후

Case #3

사회기반시설 2

동춘 터널 및 동춘교 경관개선사업

본 사례는 인천시 경관조례 26조 4항에 근거한 경관심의대상으로 연수구에서 추진한 야간경관사업사업비 1억 원 이상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사례이다. 경관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디자인 요소를 줄이고 과다한 조명색상사용을 지양하고 기존 교량과 터널시설물 구조미와 조형성을 고려한 야간 경관디자인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 터널 및 동춘교 경관개선사례

※출처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료

심의 전

심의 후

심의 전

심의 후

Case #4

경관협정

백령도 심청각 가는 길 경관협정 사업

본 사례는 옹진군에서 제시하는 주민, 행정, 군부대가 함께 추진한 경관개선 사업이다. 위원회에서는 주민과 행정 상호 협조할 내용, 주민참여에 의한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사업, 경관협정에 담는 주요내용, 행정지원에 의한 담장정비, 도로 확장에 대한 민간 소유자의 이해 문제, 사후 관리문제 등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심청각 가는 길 경관협정사업 사례

※출처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료

심의 전

심의 후

심의 전

심의 후

Case #5

개발사업

미추홀구 학익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본 사례는 기존 안에 대해서 인접 재래시장에서 버스이용편의성확보를 위한 접근로확보와 함께 녹지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특성상 지근거리에 있는 수봉산과 문학산의 일직선상의 통경축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사례이다. 본 사례에서는 개발 사업에서 건축배치는 참고적 사항으로 건축설계내용을 조정하는 사업이 아님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안내하고 정비계획수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것으로 보아 토지이용계획 내용 및 건축의 입체적 계획까지 종합적 논의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례 **※출처: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료**

기정안

· 기존 도시구조와 연계해서 남북축의 경관축을 설정하도록 함
– 의결내용: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통경축으로 연결된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변경안

* '심의 시 주안점'은…
· 개발산업 심의 시 '건축배치(밀도, 스카이라인 설정, 단지특화 등에 관한 배치 대안 설정 및 검토용)'는 참고적 사항으로 경관 심의에서 '건축설계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아님
· 다만, 정비계획 수립은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정비계획으로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입체적 제어 사항까지 검토해야 함: 이후 건축설계는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추진

· 남북의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기설계된 사업성을 검토해 볼 수 있고 반영여부가 결정됨

Case #6

민간건축물 1

부평구 오피스텔 건축

본 사례는 경관위원회에서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하는 뷰포인트를 중요시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변화를 예측하여 건축설계에 반영한 사례이다. 여기서는 객관적으로 조망점을 선정하고 이를 아이레벨에서 각 경관조망점별 인지되는 건축물의 저층부 입면디자인, 옥탑디자인마무리 등 입면변화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건축 사례

※출처: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료

평면적 도면 검토 지양

조망시점에서 검토 필요

Case #7

민간건축물 2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상가 건축

본 사례는 경관위원회에서 청라 커널워크에 인접한 부지에 건축할 분양형 상가의 건축물 입면의 중요성지적과 함께, 후면에서 상가 내부로 진입하여 커널로 연결하는 동선 외에 건축물 우측에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상가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권고한 사례이다.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상가건축 조감도

※출처: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료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 상가 배치도

※출처: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자료

GOOD
PRACTICE 4

시흥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마련

2018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정화진
(前) 경기 시흥시 경관디자인과 경관정책팀
(現) 서울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경관과 도시경관사업팀 팀장

시흥시는 양우재와 물왕동서로길을 경관협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관 개선을 추진하였다. 시흥시는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도로과, 공원관리과 등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여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 즉각적이면서 종합적인 개선을 진행했다. 2017년 양우재에 이어 2018년 물왕동서로길까지 차근차근 이어오고 있는 시흥시의 경관협정 사례를 살펴본다.

IV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마련

1.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란?

1.1 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란 무엇인가?

경관협정은 경관법에 의거, 동네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나 방법 등을 스스로 정하고 서로 약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시흥시는 이와 같은 경관협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는 경관협정 체결이 경관법에 따라 해당 대상지내 토지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관협정 체결기간이 1년 이상, 최대 4년[1]까지 소요되고, 또는 실패하는 사례들이 나타남을 인지하고, 경관협정이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무적으로 풀이하자면,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는 부서간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세스별 공무원 사전 준비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1.2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는 어떻게 추진되었나?

1.2.1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 구성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협업추진단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부서 간의 업무 칸막이를 없앨 수 있도록 도시주택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경관협정이 필요한 지역 특성에 따른 협업 부서들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구성하였다.

시흥시 첫 번째 경관협정 체결지인 양우재 경관협정구역은 시흥시의 주요 국도변으로 진입 주통행로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 등으로 민원 및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던 지역으로 "시흥시 얼굴 만들기"를 목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도로과,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등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부서별 업무 분장을 통해 즉각적인 민원사항 해결 및 종합적인 경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하였다. 시흥시의 두 번째 경관협정 체결지인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구역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5),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45p.

은 시흥시를 대표하는 저수지 주변 식당 밀집지역으로 경관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경관브랜드 창출을 목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자 한 지역이다. 이를 위하여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도로과, 하수관리과, 위생과 등 가로 환경, 지역 특화,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각 부서별 업무 분장을 통해 즉각적인 민원사항 해결 및 종합적인 경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하였다.

경관협정 지원 근거

※ 경관법 제25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추진 프로세스

협업추진단의 경관협정 체결 지원 프로세스는 "경관협정 매뉴얼(2015)"[2]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관련 부서 협업 및 공무원의 사전 검토 사항, 그에 따른 주민 참여 과정을 정리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다. 본 도서의 시흥시 사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할 때 실패 확률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과정을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담고자 했으며,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배포한 경관협정 매뉴얼(2015)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공무원 실무에 보탬이 되는 사항들을 추가로 정리하였다.

그러한 측면에서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할 때 사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경관협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참하도록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시흥시의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의 소개가 경관협정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를 느끼고는 있지만, 체결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 지자체에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적인 공무원 실무 지침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를 통해 체결된 경관협정 지역은 "양우재 경관협정"과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이 있으며, 아래 프로세스에 따라 두 사례별 추진 과정을 정리하고, 그 과정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5),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 부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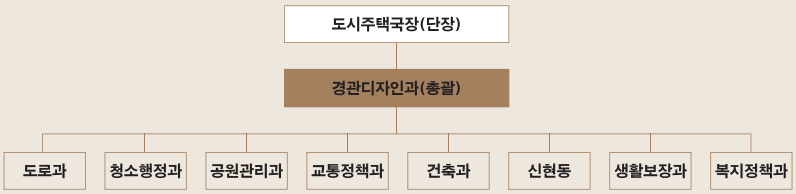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프로세스

프로세스	경관협정 매뉴얼 2015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준비하기	❶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❷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❶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공무원] 경관협정 공무원 공부모임 운영 [주민] 경관협정 스타트업 회의 및 홍보 ❷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공무원]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 구성 [주민] 경관협정 간담회 및 리더 모임
약속하기	❸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❹ 경관협정 대상지 둘러보기 ❺ 주민 아이디어 모으고 약속내용 정하기 ❻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❸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공무원] 주민의견 수렴 사항 분야별 정리 [주민] 준비위원회 구성 및 협정 초안 작성 ❹ 경관협정 대상지 및 체결 대상자 파악하기 [공무원] 대상지 및 체결대상자 범위 검토 [주민] 대상지 설정 및 체결대상자 파악 ❺ 경관협정 대상지 둘러보기 [공무원] 협업추진단 분야별 사전 답사 [주민] 우리 동네 둘러보기 ❻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및 역할 정하기 [공무원]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주민] 역할(약속내용) 정하기 ❼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공무원] 협정서 및 체결동의서 검토 [주민] 협정서 확정 및 동의서 징구
인가받기	❼ 경관협정 인가받기	❽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하기 [공무원] 운영회 설립 서류 지원 및 검토 [주민] 운영회 선출 및 설립 신고 ❾ 경관협정 인가받기 [공무원] 인가 서류 검토 및 경관심의 안내 [주민] 인가 신청 및 경관심의
운영하기	❽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❿ 경관협정사업 추진하기 [공무원] 사업 발주 및 관리 [주민] 주민 감리 및 대상지 내 시설물 관리 ⓫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공무원] 정기회의 내용 공유 및 주민공모사업 안내 [주민] 월례 정기회의 개최 및 협정 운영

Case #1

양우재

협업추진단 구성도



(2018.2. 협업추진단 구성 / 2018.12.21. 경관협정 체결)

불법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전, 후

가설 건축물 거주자 이주 지원

민·관 협력 대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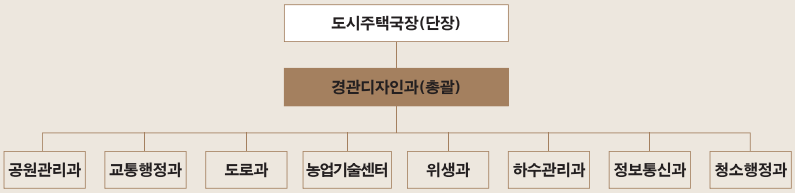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내용

구분		세부 내용		
불법적 가로경관 저해요소 개선	경관디자인과	· 개발제한구역내 노상 적치물 정비(2017.3.2./3.20/컨테이너 등 30건) · 간판개선사업(40개 업체) 가림막 개선사업(7개 업체)		
	도로과	·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조성(미산동 둘레길 연계) - '17. 4.17.: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실시설계 완료 - '17. 9~10월: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 실시		
	청소 행정과	· 민·관 협력 대청소 시 쓰레기 처리 지원 - '17 3. 30.: 5톤 트럭 15대 ※ 미산동 주민 60명, 도시교통국 및 신현동 공무원 20명 참여, 대청소 실시		
	공원 관리과	· KBS송신소 진입도로 주변 법면 환경정비 - '17. 3. 7.: 잡목제거, 칡덩굴 제거 · 지리사~한덕판지공업 구간 자원순환업종 가림목 식목		
	교통 정책과	· 대형화물차 주·박차 단속 안내 및 추진 - '17.2.~: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 밤샘주차 금지 안내 - '17.2.: 21대 단속(경고) - '17.3.: 6대 단속(경고)		
	건축과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 조사 - '17. 1. 18.: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건축물 8건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정비 - '17. 1. 2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9건 - '17. 3. 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9건 - '17. 4. 6.: 원상복구 1건(484-8번지 철파이프 철거)		
	신현동	· 미산동 주민주도협의회, 신현동 주민자치회 등 단체회의시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 · 민·관 협력 대청소 시 주민 참여 독려 - '17. 3. 30.: 미산동 주민 60명, 도시교통국 및 신현동 공무원 20명 참여		
불법 가설 건축물 거주자 이주 지원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지원	사회복지 긴급지원	· 약 100만 원('17.3.23.)
			긴급의료비 지원	· 약 200만 원('17.4.25.) ⇒ 파킨슨병 진단 및 담낭 제거 수술
			중증환자 의료급여 지원	· 파킨슨병 ⇒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비 지원('17.4.25.)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 2인 합산 월 844,000원 지급('17.5.8.)
	복지 정책과	이주 대책 지원	LH 긴급주거지원 (전세임대)	· 지원 확정('17.4.19.) · 전세물건 확인('17.5.2.~6.) · 전세 계약('17.5.17.) [포동 1-65 두성빌라 4층] · 전세금액 6,000만 원 ⇒ LH 지원: 5,700만 원 ⇒ 자부담 5%: 300만 원 (당사자 50만 원 / 1%복지재단 50만 원 지원 / 거북이나눔회 100만 원 지원 / 신현동 자원봉사센터 100만 원 지원)

Case #2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협업추진단 구성도



(2018.2. 협업추진단 구성 / 2018.12.21. 경관협정 체결)

간판개선사업 전, 후

공중화장실 개선 전, 후

브랜드 선포식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내용

구분		세부 내용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경관디자인과	· 간판개선사업 (52개 업체) - '19.6.25.~'20.2.29.: 불법 간판 철거 및 신규 간판 설치 ·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사업 - '19.8.1.~'20.6.30.: 가로별 컬러코딩에 따른 상징시설물, 종합안내지도, 방향표시판, 전신주 넘버링, 도로 경계라인 설치
가로 환경	공원 관리과	· 가로수 전지 작업 - '19.4.: 가로수 전지 작업 및 꽃길 조성 검토
	교통 행정과	· 신호체계 개선 - '18.7.: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물왕삼거리 좌회선 신호시간 조정 및 동서로 감속(70 ⇒ 60km)
	도로과	·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 '19.3.~9.: 가로등 및 보안등 LED 교체(60개)
지역특화	농업기술센터	· 연꽃 재배지 개선 - '19.3.~4.: 연꽃 재배지 청소 및 제초
	위생과	· 지역 브랜딩 - '18.7~9: 지역 브랜딩 네이밍(물왕동서로길) 및 디자인 개발 - '18.11 : 물왕동서로길 브랜드 선포식 - '19.7~11: 식당가 현판 제작 설치 지원
마을환경	하수관리과	· 공중화장실 개선 - '18.11.~19'.3.: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정보통신과	· CCTV 설치 - '18.11.~'19.3.: 공중화장실 주변 CCTV 설치
	청소행정과	· 쓰레기 처리 개선 - '19.1.~3.: 쓰레기 처리 안내 홍보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대상지별 프로세스

양우재

준비하기 ››

❶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2016. 9.~12. [공무원] 경관협정 공무원 공부모임 운영
2017. 1. 12. [주민] 경관협정 스타트업 회의 및 홍보

❷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2017. 1. [공무원]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 구성 경관디자인과 외 8개 부서
(도로과, 건축과,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등)
2017. 1. 18. [주민] 경관협정 간담회 및 리더 모임

약속하기 ››

❸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2017. 1. [공무원] 주민의견 수렴 사항 분야별 정리
2017. 2. 3. [주민] 준비위원회 구성 및 협정 초안 작성

❹ 경관협정 대상지 및 체결 대상자 파악하기

2017. 2. [공무원] 대상지 및 체결대상자 범위 검토
2017. 2. [주민] 대상지 설정 및 체결대상자 파악

❺ 경관협정 대상지 둘러보기

2017. 2. 13.~15. [공무원] 협업추진단 분야별 사전 답사
2017. 2. 17. [주민] 우리 동네 둘러보기

❻ 경관협정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및 역할 정하기

2017. 2.~3. [공무원]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2017. 3. [주민] 역할(약속내용) 정하기

❼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2017. 3.~4. [공무원] 협정서 및 체결동의서 검토
2017. 3.~4. [주민] 협정서 확정 및 동의서 징구

인가받기 ››

❽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하기

2017. 4. [공무원] 운영회 설립 서류 지원 및 검토
2017. 4. 27. [주민] 운영회 선출 및 설립 신고

❾ 경관협정 인가받기

2017. 5. [공무원] 인가 서류 검토 및 경관심의 안내
2017. 5. 12. [주민] 인가 신청 및 경관심의

운영하기 ››

❿ 경관협정사업 추진하기

2017. 6.~12. [공무원] 사업 발주 및 관리(협업추진단) (간판개선사업 40개 업체/가림막 개선 사업 등)
2017. 7.~ [주민] 주민 감리 및 대상지 내 시설물 관리

⓫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2017. 7.~ [공무원] 정기회의 내용 공유 및 주민공모사업 안내
2017. 7.~ [주민] 월례 정기회의 개최 및 협정 운영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준비하기 ››

	❶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2017. 9.~12.	[공무원]	경관협정 공무원 공부모임 운영
2018. 1. 10.	[주민]	경관협정 스타트업 회의 및 홍보
	❷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2018. 1.	[공무원]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 구성 경관디자인과 외 8개 부서 (하수관리과, 위생과, 정보통신과 등)
2018. 1. 19.	[주민]	경관협정 간담회 및 리더 모임

약속하기 ››

	❸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2018. 2.	[공무원]	주민의견 수렴 사항 분야별 정리
2018. 3. 6.	[주민]	준비위원회 구성 및 협정 초안 작성
	❹	**경관협정 대상지 및 체결 대상자 파악하기**
2018. 3.	[공무원]	대상지 및 체결대상자 범위 검토
2018. 3.	[주민]	대상지 설정 및 체결대상자 파악
	❺	**경관협정 대상지 둘러보기**
2018. 4. 2.~6.	[공무원]	협업추진단 분야별 사전 답사
2018. 4. 10.	[주민]	우리 동네 둘러보기
	❻	**경관협정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및 역할 정하기**
2018. 7.~8.	[공무원]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2018. 8.	[주민]	역할(약속내용) 정하기
	❼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2018. 9.	[공무원]	협정서 및 체결동의서 검토
2018. 9.~10.	[주민]	협정서 확정 및 동의서 징구

인가받기 ››

	❽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하기**
2018. 11. 1.~9.	[공무원]	운영회 설립 서류 지원 및 검토
2018. 11. 15.	[주민]	운영회 선출 및 설립 신고
	❾	**경관협정 인가받기**
2018. 11.	[공무원]	인가 서류 검토 및 경관심의 안내
2018. 11. 28.	[주민]	인가 신청 및 경관심의

운영하기 ››

	❿	**경관협정사업 추진하기**
2019. 1.~2020. 5.	[공무원]	사업 발주 및 관리(협업추진단)(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 공중화장실개선사업 등)
2019. 2.~	[주민]	주민 감리 및 대상지 내 시설물 관리
	⓫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2019. 1.~	[공무원]	정기회의 내용 공유 및 주민공모사업 안내
2019. 1.~	[주민]	월례 정기회의 개최 및 협정 운영

시흥시 경관협정 대상지별 내용

양우재

- **배경 및 목적** -시흥시의 주요 국도변으로 불법적 경관저해요소 개선을 통한 시흥 얼굴 만들기 추진
- **사업 기간** -2017.1.~12.
- **위치/규모** -시흥대로 미산동 500m 구간
  -체결자: 65명(영업자 40/토지등소유자 25)
-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 -준비, 계획, 인가의 경관협정 체결 과정을 통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자원순환업체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 간판 개선 등의 경관개선사업과 적치물 마을 자체 계도위원회 등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협업을 통한 종합복지 지원 추진

구분	세부 내용	
경관협정 체결	준비	· 경관협정 아카데미 ('17. 2~3월)
		·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6명) 및 협정서 작성 ('17. 3월)
	계획	·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및 동의 확보_65명 ('17. 4월) ※ 대상지 내 토지주 및 영업자 전원(영업자40/토지등소유자25)
		·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7명) 및 협정서 확정 ('17. 4~5월)
	인가	· 양우재 경관협정 경관심의 의결 및 공고 / 협정체결식 ('17. 5~6월)
경관협정사업 및 프로그램	[하드웨어] 경관개선사업	· 내 가게 앞 나무 심기 ('17. 6월) · 자원순환업체 등 가림막 개선사업_7개 업체 ('17. 7월) · 적치물 개선 사업_5개소 ('17. 7~8월) · 간판개선사업_40개 업체 80개 간판 ('17. 9~12월)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프로그램	· 체결자 월별 정기회의 ('17. 7월~현재) · 적치물 마을 자체 계도위원회 운영 ('17. 9월~현재) ※ 관련 워크숍 실시 (3회 / '17. 8~10월) · 대청소 실시 ('17. 3월) ·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_꽃길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18. 9~11월)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기반 마련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 유지관리, 꽃길 가꾸기 등 주민(경관협정운영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기반 마련

구분	[관] 경관협정 및 협업사업		[민] 주민약속 사항	
내용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간판개선사업(경관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가로 환경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경관디자인과) 꽃길 조성(공원관리과) 자전거도로 조성(도로과) 대청소 지원(청소행정과) 대형화물차 주·박차 개선(교통행정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계도(건축과) 불법컨테이너 거주자 이주 지원(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신현동주민센터)	가로 환경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 유지관리 꽃길 가꾸기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 **배경 및 목적**
  -시흥을 대표하는 저수지 주변 식당 밀집지역의 경관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경관브랜드 창출 추진
- **사업 기간**
  -2018.1.~2020. 6.
- **위치/규모**
  -물왕저수지 주변 식당 밀집지(동서로811번길 13번지 일대) 200,000㎡
  -체결자: 131명(영업자 52/토지등소유자 79)
-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
  -협업을 통해 준비, 계획, 인가 과정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옥외광고물, 가로 환경, 지역 특화, 마을 환경의 유형으로 종합적인 경관 개선 추진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추진

구분	세부 내용	
경관협정 체결 (2018)	**준비**	· 경관협정 아카데미 ('18. 1~2월)
		·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9명) 및 협정서 작성 ('18. 3~4월)
	계획	·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및 동의 확보_131명('18. 5~9월) ※ 대상지 내 토지주 및 영업자 전원(영업자 52/토지등소유자79)
		·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 및 협정서 확정 ('18. 10~11월)
	인가	· 경관협정 경관심의 의결 및 공고 / 협정체결식('18. 11~12월)
경관협정사업 및 프로그램 (2019~2020)	**[하드웨어] 환경개선사업**	· 간판개선사업('19. 3월~20'. 2월) ·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19. 3월~20'. 6월) · 신호 체계 및 불법 주정차 개선('18. 7~8월) ·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19. 3~9월) · 연꽃 재배지 관리 개선('19. 3~4월) · 지역 브랜딩 추진('18. 7월~19'. 11월) · 공중화장실 개선 및 CCTV 설치('18. 11월~19'. 3월) · 쓰레기 처리 개선 안내('19. 1~3월)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프로그램	· 체결자 월별 정기회의 ('18. 11월~) - 약속사항 이행 및 유지관리 관련 · 물왕동서로길 지역 브랜딩 추진 ('19. 3월~) · 대청소 실시 ('19. 3월~)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기반 마련
  옥외광고물, 가로 환경, 지역 특화, 마을 환경의 사업 추진 유형과 연계한 주민(경관협정운영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기반 마련

구분		[관] 경관협정 및 협업사업		[민] 주민약속 사항
내용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간판개선사업(경관디자인과)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경관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준수 및 관리
	가로 환경	꽃길 조성(공원관리과) 신호 체계 및 불법주정차 개선(교통행정과)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도로과)	**가로 환경**	내 가게 앞 관리 및 꽃길 관리 불법주정차 차량 계도
	지역 특화	연꽃 재배지 관리 개선(농기센터) 지역 브랜딩 추진(위생과)	**지역 특화**	연꽃 재배지 관리 브랜드 디자인 활용 및 통합홈페이지 구축
	마을 환경	공중화장실 개선 및 CCTV 설치(하수관리과, 정보통신과) 쓰레기 처리 개선(청소행정과)	**마을 환경**	공중화장실 주변 관리 및 적치물 관리 쓰레기 처리 기준 준수

❶ 경관협정 제도 이해하기

[공무원] 경관협정 공무원 공부모임 운영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해서는 그 담당자 뿐만이 아닌 관련 부서들도 관련 내용의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흥시는 경관협정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기용하고 시흥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의 및 공부모임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시청 내부적으로 경관협정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공부모임은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경관개선 및 관리와 연계된 부분이 많은 도시, 도로, 건축, 녹지, 공원 관련 부서들로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주민] 경관협정 스타트업 회의

이 단계에서 "경관협정 매뉴얼(2015)"에서는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강의 요청하기"라고 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강의를 요청하거나, 관할 담당 공무원에게 전문가를 추천받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경관협정이 필요한 대상지의 해당 주민들이 먼저 필요를 느끼고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시흥시의 경우에는 경관협정이라는 제도조차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경관협정 체결이라는 것이 대상지 내 토지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의지와 구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시흥시는 상황에 따라 전문가를 배치하여 그 흐름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경관협정 추진과 구체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직을 배치, 공무원 교육공부모임에서부터 주민 교육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협정을 위한 주민과의 첫 만남인 스타트업 회의에서는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와 설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듣고, 체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을 위한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모든 프로젝트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주민을 만나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주로 분야와 부서를 떠난 지역의 모든 민원 사항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는 논의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서 시

시흥시 경관협정 공부모임

흥시는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첫 만남에서 지역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을 구분하여 관련 부서들과 협업, 논의하여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중장기적인 개선 사항은 단계별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즉각적으로 개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 이를 통해 민원사항에 대한 잡음으로 지역에 대한 논의가 소모적인 돌림노래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가능하면 다음 단계주민 아카데미 이전에 즉각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민원사항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소통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관협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누가 봐도 중요도가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는 지역일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관에서도 주민들도 궁극적인 개선의 필요는 느끼고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소통의 속도가 달라 불신이 만연해 있는 지역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간 투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민] 경관협정 홍보

경관협정의 홍보는 "경관협정 매뉴얼(2015)"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단지 배포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지만, 시흥시는 스타트업 회의를 통해 수집한 주민의견을 정리하여 즉각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민원사항의 개선을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의 구성과 함께 지역의 리더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극대화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❷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하기 (민·관 신뢰 회복)

[공무원]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 구성

앞에서 언급한 신뢰 회복을 위한 시간 투자 과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을 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 스타트업 회의

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경관법에서도 정의한 바와 같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속의 생활상, 삶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경관 관련 부서만 움직여서는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을 구성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민원사항을 개선하여 민·관의 신뢰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 개선을 위하여 민·관 협력 이전에 부서간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부서간 협업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시흥시는 도시주택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을 구성하였다. 협업추진단 구성은 경관협정 체결이 필요한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관련 부서를 선정하여 대상지별 맞춤형으로 결성하였다.

[공무원]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을 통한 민원 해결
스타트업 회의를 통해 수집된 주민 의견 중에서 즉각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민원사항들은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양우재 경관협정구역은 가구, 기계공구, 자원순환시설이 입지한 시흥시 주요 국도변으로 무단 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이에 협업추진단은 자진 개선 유도를 위한 계도를 실시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구역의 경우, 대상지 주 출입로인 물왕삼거리의 좌회전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 및 회의 사진 (물왕저수지 주변_물왕동서로길)

신호가 짧아 차량 통행이 정체되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호 체계를 개선교통행정과하였으며, 노후화되고 우범화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하수관리과을 바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주민] 경관협정 간담회

주민간담회는 주민들에게 경관협정 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지역의 경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하고, 구체적인 의견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회의 때 수렴했던 주민의견을 유형별, 부서별로 구분하여 단기, 중장기 계획으로 정리, 주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이 현재 지역의 현안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렇게 이전 단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리, 피드백하여 시의 의지와 정성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즉각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들의 개선을 약속,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책임과 역할 또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준비하기 단계의 간담회는 전체 주민 참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사모임을 기반으로 수시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관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주민] 리더 모임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역 리더주민대표 및 기존 주민조직 임원 모임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경관협정에 대한 약속을 정하고, 체결을 위한 주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시흥시에서는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과 리더 모임을 같이 하여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추진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관의 오해 및 갈등사항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양우재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을 통한 적치물 개선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을 통한 공중화장실 개선

❸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하기

[공무원] 주민의견 수렴 사항 분야별 정리

앞선 단계의 스타트업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경관협정을 기반으로 정리하여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 및 협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사전 자료로 준비하였다. 또한 논의된 사항들의 구체적인 개선 및 실행을 위하여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의 회의를 거쳐 실직적인 분야별 계획을 사전적으로 수립하였다.

양우재 경관협정구역은 시흥시 주요 국도변으로 시흥시 진입 주통행로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 등으로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던 지역으로 가로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도로과, 청소행정과, 공원관리과 등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불법 컨테이너 철거에 따른 거주자 기초생활 및 주거지 지원을 위하여 복지 관련 부서도 협업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양우재 경관협정 주민의견 수렴 분야별 정리 내용

구분	주요 정비 사항	협정사항	검토부서
가로	· 가드레일, 펜스, KBS송신소입구 인도정비, 건설기계차량 단속		도로과
	· 쓰레기 처리 원칙 설정 및 약속 · 무단방치폐기물 정비, 사유지 청결명령	○	청소행정과
	· 가로수 정비, 가로변 녹화 및 관리	○	공원관리과
	· 대형화물차 주박차 단속		교통정책과
	· 개발제한구역 내 적치물 등 위법행위 정비, 자진 정비 유도	○	건축과
	· 주민협의체 참여·홍보 및 환경정비 등 시민참여독려	○	신현동
간판	· 불법 도로점용물 및 옥외광고물 정비, 자진 정비 유도, 디자인 자문	○	경관디자인과
기타(복지)	· 불법 컨테이너 철거에 따른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 및 LH 긴급주거(전세임대) 지원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구역은 시흥시를 대표하는 저수지 주변 식당 밀집지역으로 경관 개선을 통해 상권 활성화 및 경관브랜드 창출을 목적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자 한 지역으로 가로 환경 및 지역 특화,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등 마을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도로과, 하수관리과, 위생과 등 가로 환경, 지역 특화,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협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 주민의견 수렴 분야별 정리 내용

구분	주민 의견	협정사항	검토부서
가로 ⇒ 보행 안전 문제 개선을 목표로 우선 추진	· 불필요한 전신주 정리 필요		도로과
	· 거리 특성화 필요 ⇒ 큰 틀에서의 디자인 원칙 제시(보행 안전 관련 포함)	○ (꽃,과실수 관리 등 주민참여 가능한 부분)	경관디자인과, 도로과(조성)
	· 특색있는 마을길 조성 필요 ⇒ 큰 틀에서의 디자인 원칙 제시 루트별 테마, 특색있는 길 만들기 필요 ex) 꽃길, 과실수, 걷고 싶은 마을길 조성 등(아래 그림 참고)		
	· 보행환경 개선 필요 물왕 저수지 주변 도로 정비 필요(도로와 인도 구획 정비) 물왕저수지와 연계, 인도 조성을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 필요		공원관리과 도로과
	· 물왕 저수지 주변에 맞게 가로 등을 통일되게 정비한 후에 개인업장의 정비 개선 필요 (발굴)	○	경관디자인과
	· 전반적인 디자인(도로 등) 제시 필요 ⇒ 큰 틀에서의 디자인 원칙 제시		
	· 도로폭 넓히기(부분적으로 좁은 부분 정비 필요) ⇒ 도로폭 확폭이 필요한 부분 조사		경관디자인(발굴) 도로과(조성)
	· 보행 유도를 위해 인도 조성 및 발지압 구간 설치 필요		도로과
	· 길 가에 연꽃 화분 놓기	○	
	· 도로방지턱 조성 필요		도로과, 교통정책과
간판	· 간판의 테마화 필요	○	경관디자인과
	· 안쪽에 위치한 식당들도 진입로에서부터 인지될 수 있도록 종합 안내 간판 등의 사인 설치 필요	○	
안내 사인	· 별도의 비용을 업장별로 부담하더라도 잘 보이는 포인트 지점이나 업장별 정해진 장소에 현수막 게시대를 합법적이고 정리되게 게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경관디자인과, 도로과 (도로점용 등 협조)
	· 음식점 지도 중간중간 또는 각 업장별 특성을 소개할 수 있는 사인 필요	○	
	· 입구 상징적인 사인물 설치 필요	○	
조명	· 거리의 가로등 밝기 조절 필요(경관조명, LED 등, 가로등 포함)		도로과(조성 관련)
	· 공중화장실(전라도 팥칼국수 인근) 주변 어둡고 노후화된 부분 개선 필요 ⇒ 특별히 어둡고, 우범화 우려 지역 조사	○ (주변 관리)	도로과, 하수관리과, 경관디자인과
	· 가로등 번호 표기 및 CCTV 설치 필요 ⇒ 야간경관 특화 방안 제시(큰 틀에서 디자인 원칙 제시)		경관디자인과, 도로과, 정보통신과
지역 특화	· 수로 차량이 자주 빠지는 부분 개선 필요, 수로를 메워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 검토 필요		도로과, 하수관리과
	· 저수지 연꽃 관리 필요(관리주체 부재)	△(주민관리 추진 시)	농기센터, 농어촌공사
	· 길과 영업장 사이 공간 개선 방안 발굴	○(주변 관리)	경관디자인과
	· 물왕지역 캐릭터 개발 필요 ⇒ 방향 및 스토리 전개 제시 (기본 캐릭터 + 각 업소마다 포인트 줄 수 있는 추가 캐릭터 등)	○(활용 및 관리)	경관디자인과

[주민] 경관협정준비위원회 구성 및 초안 작성

경관협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관협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협정 체결 이후에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시흥시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이 정리한 주민의견 수렴사항들을 준비위원회와 함께 논의하여 경관협정 초안으로 발전시키고, 경관협정 워크숍, 협정체결자 모집 및 동의서 징구 등의 진행과정을 준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다.

시흥시 경관협정준비위원회 구성도

❹ 경관협정 대상지 및 체결대상자 파악하기

[공무원] 경관협정 대상지 및 체결대상자 범위 사전 검토

경관협정 체결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관협정 체결 대상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 내 해당하는 체결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경관법에 의거하여 1인 협정도 가능하지만, 일정 지역 일대을 체결 대상지로 설정하였을 때는 그 대상지 내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대상지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체결대상자 파악은 경관협정 체결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관협정 체결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게 되는 원인의 대부분이 그 대상지 범위를 무리하게 설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체결대상자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흥시는 경관협정 대상지 범위를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협업추진단과 논의하여 체결대상자 전원 합의가 용이하지 않을 때를 고려하여 그 대상지 범위를 단계별로 설정해놓는 사전 검토 작업을 실시하였다.

경관협정 체결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지역에서 다시 경관협정 체결을 이끌어 내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처음 하고자 했던 대상지 전체 범위의 경관협정 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 범위라도 경관협정 체결을 이끌어 내어 경관 개선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범위를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

단계별 대상지 범위 설정도 (물왕저수지 주변_물왕동서로길)

단계별 대상지 범위 설정도(양우재)

특히 지자체에서 먼저 경관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 합의를 통해 협정 체결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단계별 범위 설정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놓는 것이 경관협정 체결의 실패 확률을 낮추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흥시는 "양우재"와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의 경관협정을 체결했고, 두 지역 모두 준비단계에서부터 협업추진단을 통해 주민들과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은 결과 처음 계획하였던 대상지 전체 범위를 경관협정구역으로 인가받을 수 있었다.

[주민] 경관협정 대상지 설정 및 체결 대상자 파악

앞에서 사전에 단계별로 검토된 대상지 범위와 그에 따른 체결 대상자를 경관협정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함께 검토하고, 경관협정준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범위를 대상지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체결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협정 체결 대상자는 해당 대상지의 영업자, 주민 및 건물주, 토지소유자를 그 대상자로 설정하였고, 경관협정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결 대상자를 파악하고, 본격적인 경관협정 체결 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준비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

❺ 경관협정 대상지 둘러보기

[공무원] 협업추진단 분야별 사전 답사

앞 단계를 통해서 설정된 대상지 범위 내의 주민의견 정리 자료스타트업 회의 및 간담회 등을 통한 민·관 의견 교류를 기반으로 협업추진단과 분야별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계획의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야별로 답사함으로써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확인된 사항들을 주민

협업추진단 사전 답사 사진(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우리 동네 둘러보기 사진(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과 함께 "우리 동네 둘러보기" 단계 전에 경관디자인과에서 취합, 정리하여 주민들과 함께 경관협정 대상지를 둘러볼 때 구체적인 개선 내용들이 현장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협업추진단 분야별 사전 답사를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 대상지를 둘러보는 시간이 주민 민원 성토의 장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닌,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 우리 동네 둘러보기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스타트업 회의부터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수집된 의견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협업추진단의 개선 방안도 직접 눈으로 보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행할 수도 있는데, 시흥시는 사전 단계를 통해 지역의 문제, 또는 보완해야 하는 사항들을 미리 논의하고, 민·관의 구체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 사전 답사까지 완료한 내용들을 현장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을 줄일 수 있었다.

❻ 경관협정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및 역할(약속내용) 정하기

[공무원] 경관협정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스타트업 회의, 간담회, 동네 둘러보기 등 단계별로 민·관의 상호간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된 사항을 도시 및 건축, 마을 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 및 논의를 통해 수요자별로 워크숍을 준비하였다.

보통 영업자와 거주자는 추구하고자 하는 바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별로 맞춤형 워크숍을 진행하여 그 간극을 좁히고, 합의된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경관협정 체결자의 역할과 약속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관협정 매뉴얼(2015)"에 정리된 워크숍 과정은 기획단계, 팀 구분, 현장답사, 토론, 모형제작, 그림그리기 등의 단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흥시는 사전 단계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전개하였기 때문에 시흥시의 워크

양우재 경관협정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수요자 맞춤형 워크숍

숍은 완성도 있는 계획과 내용을 공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영업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주민, 건물주, 토지소유자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총 2개 그룹으로 워크숍을 운영하고, 2~3개월의 기간 내 매주 1회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체결대상자들이 경관협정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워크숍의 단계는 3단계로 구분하여 이미 사전 단계의 피드백을 거쳐 숙성된 계획의 내용을 함께 논의하는 1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는 가시화된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 3단계에서는 이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별로 많은 체결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4회ex. 1단계 워크숍 첫째 둘째 주 수요일 오전, 오후 실시 반복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가능한 많은 체결대상자가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전략적으로 역할 및 약속내용을 하나로 종합하였다.

[주민] 역할(약속내용) 정하기

수요자 맞춤형, 단계별 워크숍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된 민·관의 역할과 약속내용을 경관협정서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외에도 경관협정서에 담길 경관협정의 명칭, 대상지 범위, 체결대상자, 유효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우재 경관협정구역은 주민 약속사항으로 불법광고물 및 무단 적치물 개선 유지관리를 중점적으로 설정하고, 시흥시에서는 협업추진단을 통해 간판개선사업 및 가림막 개선, 꽃길 조성 등을 지원하였다.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구역은 주민 약속사항으로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준수 및 관리, 물왕동서로길 브랜드 디자인 활용 등을 설정하고, 시흥시에서는 협업추진단을 통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❼ 경관협정서 작성 및 체결하기

[공무원]

경관협정서 및 체결 동의서 사전 검토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협업추진단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약속내용을 정리한 경관협정서를 사전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의 경관협정 체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작성, 사전 검토하였다.

양우재 경관협정구역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여 가로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유형별로 분류한 내용을 약속내용으로 정리, 검토하였다.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구역은 식당 밀집지라는 지역 특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간판이 난립된 상황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적 준수 내용과 지역 규약, 가로환경, 지역특화, 마을환경 관련 약속사항을 정리, 검토하였다.

민·관 역할 구분 및 약속내용 설정

양우재 경관협정

관련 부서 협업 추진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 간판 개선 사업(경관디자인과)

가로 환경
-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경관디자인과)
- 꽃길조성(공원관리과)
- 자전거도로 조성(도로과)
- 대청소 지원(청소행정과)
- 대형화물차 주·박차 개선(교통행정과)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계도(건축과)
-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신현동주민센터)

기타(복지)
- 불법컨테이너 거주자 이주 지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

주민약속(경관협정)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가로 환경
-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 유지 관리
- 꽃길 가꾸기

기타(복지)
- 경관협정 정기 회의 등 공동체 참여 유도

물왕저수지 주변

관련 부서 협업 추진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 간판 개선 경관협정사업(경관디자인과)
- 길 찾기 쉬운 안내 사인(경관디자인과)

가로 환경
- 꽃길조성 검토(공원관리과)
- 신호체계 및 불법주정차 개선(교통정책과)
- 보행개선 검토 및 과속방지턱(도로과)
-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도로과)

지역특화
- 연꽃 재배지 관리 개선(농기센터)
- 지역 브랜딩(식생활정책과)

기타(복지)
- 쓰레기 처리개선(청소행정과)
- CCTV 설치 검토(정보통신과)
- 공중화장실 개선(하수관리과)

+

주민약속(경관협정)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 길 찾기 쉬운 안내 사인 시스템 준수, 관리

가로 환경
- 내 가게 앞 관리, 꽃길 관리
- 나눔 주차 약속 및 관리

지역특화
- 연꽃 재배지 관리
- 브랜딩 디자인 활용

기타(복지)
- 쓰레기 처리 약속
- 적치물 관리
- 공중화장실 주변 관리

[주민] 경관협정서 확정 및 동의서 징구

협업추진단 및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된 경관협정서를 경관협정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결대상자들과 검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경관협정서를 확정하고, 동의서 징구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는 대상지 내 영업자 및 주민을 중심으로 동의서 징구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체결 동의한 영업자 및 주민이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의서 징구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지역 통장 등의 협조를 구하여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한 체결대상자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협정 분야별 약속내용

양우재 경관협정

공공영역	가로적치물	가로변 무단 적치물 난무	협정01	양우재 가로 경관을 고려하여 가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는다.
		주 집입 통행로로 경관 저해	협정02	가로 적치물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양우재 가로 적치물 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쓰레기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때 쓰레기 가로에 적치	협정03	분기별로 가로 대청소를 실시한다.
			협정04	가로 주변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협동하여 청소하고 관리한다.
민간영역	옥외광고물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의 난립 경관 저해	협정05	옥외광고물 등의 형태는 간소하고 일관된 크기로 제작한다.
			협정06	옥외광고물 등의 색채는 가능한 한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양우재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협정07	입간판의 경우, 시흥시 입간판 가이드라인을 따른다.(안내표지판, 지주이용간판은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가림막 펜스	지저분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많은 가림막 펜스	협정08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브라운 계열의 색채로 도색하고, 펜스 앞 쪽에 수목을 식목하여 계절별로 변화되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가꾼다.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간판, 광고물 및 안내사인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의 난립	협정01	각 점포에 설치하는 간판과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의 크기와 개수는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협정02	방문객의 쉬운 길찾기를 위해 컬러코드를 사용한 웨이파인딩 시스템을 적용한다.
		협정03	간판의 재료 및 표현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정사항을 따른다.
	골목안 점포 길찾기 어려움	협정04	현수막과 임시 광고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지정된 장소와 기간을 지켜 게시한다.
	마을입구 상징물 설치 필요	협정05	마을 입구에 물왕저수지 브랜딩 사인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마을 안내에 활용한다.
가로환경	노상주차와 침범차량으로 교통정체 발생	협정06	길과 영업장 사이에는 화분이나 실선표시 등의 방법을 통해 도로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차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를 예방한다.
	보행환경이 나빠 도보이용자 없음	협정07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꽃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마을 축제와 같은 특별 행사기간에는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주말 식사시간대 주차공간 부족	협정08	나눔주차를 통해 주차공간 부족 시 유연하게 대처하고, 도로변 노상주차 방지에 적극 협조한다.
지역특화	연꽃재배지 방치되어 있음	협정09	연꽃 재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 관리와 다양한 활용에 협조한다.
	지역을 통합할 브랜드나 이미지 없음	협정10	브랜딩 디자인을 명함, 쇼핑백, 포장용품, 통합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을환경	쓰레기, 적치물, 컨테이너 방치됨	협정11	쓰레기는 협정을 통해 결정한 위치에 지정된 시간에만 배출한다.
		협정12	농한기에 적치물이나 컨테이너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무분별한 전신주, 통신주 설치	협정13	전신주와 통신주는 가급적 통합하고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공중화장실 주변 지저분함	협정14	공중화장실 주변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❽ 경관협정운영회 설립하기

[공무원]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서류 지원 및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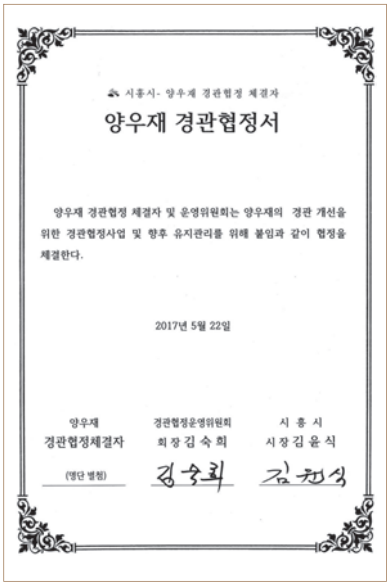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은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의무사항은 아니며, 경관법 20조에 의해 설립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를 통해 체결된 경관협정 지역은 모두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여 경관협정 체결 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투명한 경관협정 운영을 기반하고자 한 것이었다.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을 근거로 단체로 등록하면 주민참여 공모사업 신청이나 그에 따른 사업비 입출금 시 투명한 운영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운영회 설립은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설립을 위한 절차 안내 및 회의 지원을 추진하였다.

운영회 설립 서류는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와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가 있으며 경관협정운영회 회칙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이후에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주민] 경관협정운영회 선출 및 설립 신고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을 위해서는 경관협정준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경관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경관협정운영회 선출을 위한 자리에 참석이 어려운 건물주 및 토지소유자는 경관협정준비위원회로 위임장을 접수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흥시- 양우재 경관협정 체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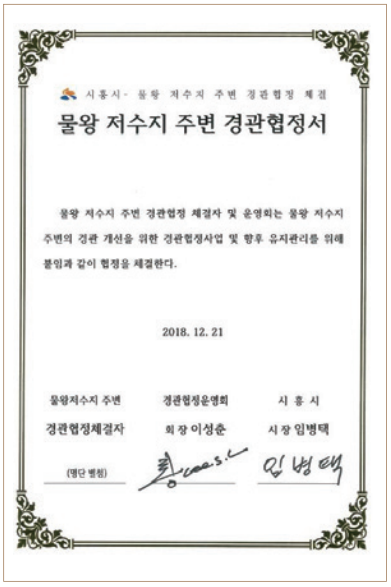
양우재 경관협정서

양우재 경관협정 체결자 및 운영위원회는 양우재의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협정사업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2017년 5월 22일

양우재 경관협정체결자	경관협정운영위원회 회장 김숙희	시흥시 시장 김윤식
(명단 별첨)	김숙희	김윤식

양우재 경관협정 체결서



시흥시- 물왕 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체결

물왕 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서

물왕 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체결자 및 운영회는 물왕 저수지 주변의 경관 개선을 위한 경관협정사업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붙임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2018. 12. 21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체결자	경관협정운영회 회장 이성춘	시흥시 시장 임병택
(명단 별첨)	이성춘	임병택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서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회장 및 임원부회장, 총무, 위원 다수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고, 시흥시에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❾ 경관협정 인가 받기

[공무원] 인가 서류 지원 검토 및 경관심의 안내

경관협정 인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경관협정서와 체결 동의서이며, 이 서류의 제출 안내와 함께 경관법 21조에 의거, 해당 지자체 소속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고, 경관심의 접수를 위한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였다. 시흥시 경관심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경관심의를 위한 전문가의 자문도 연계 지원하였다.

[주민] 경관협정 인가 신청 및 경관심의

경관협정운영회 대표자는 시에 경관협정서 및 체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경관심의 준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경관협정운영회 대표는 해당 경관협정 내용에 관해 숙지하고, 시흥시에서 연계 지원한 자문가의 자문 및 도움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해당 경관협정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직접 설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를 매칭하여 관련 내용의 숙지 및 설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선출) 회의 사진(상: 양우재, 하: 물왕저수지 주변)

[주민] 경관협정 체결식

경관협정 체결식은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경관협정 체결을 위해 고단한 과정을 겪은 경관협정준비위원회, 운영위원회, 체결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경관협정사업 및 운영 관리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향후 운영하게 될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타지역에도 경관협정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⑩ 경관협정사업 추진하기

[공무원] 경관협정사업 발주 및 관리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경관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화가 필요한 부분과 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경관협정사업을 통해,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은 자체 프로그램정기 월례회의를 통해 논의 및 추진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경관협정사업은 주로 공공공간의 개선이나 간판 및 담장 등 경관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의 개선을 사업화하여 진행하였다. 간판 및 담장 등의 사유 시설물의 개선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비를 매칭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양우재 경관협정 체결식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 체결식

러한 시설의 유지관리는 경관협정운영회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경관협정 체결 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경관협정사업은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추진단을 통해 종합적으로 실행하여 양우재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불법 거주자 이전을 위한 종합복지를 연계, LH 전세주택 및 기초생활수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경관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고, 그 속의 삶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그 대상지에서 거주하는 삶의 회복까지도 종합적으로 지원, 개선될 수 있도록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사업은 무분별한 간판으로 인하여 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규에 따라 간판 개수와 규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가로별 컬러 코딩간판 주 색채, 전신주 색채 및 넘버링 설정을 통해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화하였다. 또한 협업추진단을 통해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공중화장실 개선, 연꽃재배지 개선, “물왕동서로길” 지역 브랜드 개발 등 종합적인 경관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양우재 경관협정사업(적치물 정비 및 가로 개선)

양우재 경관협정사업(간판개선사업)

[주민] 경관협정사업 주민 감리 및 대상지 내 시설물 관리

경관협정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로 대상지 내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 감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수시로 사업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유 시설물 이외에도 종합이용안내판 등 입주 업체들이 변경되어 수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협정운영회를 중심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⓫ 경관협정 운영·관리하기

[공무원] 정기회의 내용 사전 공유 및 주민참여 공모사업 안내

경관협정 내용관리 프로그램: 마을 청소, 내 가게 앞 꽃 가꾸기 등을 주로 이행하는 부분은 경관협정운영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사업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민참여 공모사업들을 안내하여 경관협정운영회 및 체결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개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연계해 주었다.

양우재 경관협정구역의 경우에는 "2018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관협정사업으로 조성한 꽃길을 주민 자력으로 연장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주민] 월례 정기회의 개최 및 협정 내용 운영

경관협정을 운영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서로 독려하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함께 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구역별 월례 정기회의를 추진하였다.

경관협정구역별 월례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추가로 논의, 고안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전문가 매칭 등 관련 지원을 연계할 수 있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사업 (간판개선사업)

도록 하였다. 또한 월례 정기회의를 통해 모르고 지내던 이웃들이 형님, 아우 하는 이웃사촌이 되어 지속적으로 지역을 관리해 나가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

⑫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활용 제안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는 크게 두 가지 문제, 또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방안이 되겠다.

첫째는 민·관의 신뢰회복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단축하여 효율적인 경관협정 체결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고, 둘째는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실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프로세스별로 정리한 것이다.

첫 소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가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공무원의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서간의 협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을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라도 본 우수사례에서 소개하고 있는 프로세스별 주요 내용을 활용하여 경관협정 체결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과정을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지자체별 여건이 다르고, 경관협정 대상지별 특성이 다르지만, 시흥시의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가 타지자체의 경관협정 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사업 (길 찾기 쉬운 사인 시스템 구축 사업)

Case #1

양우재

경관협정

· **배경 및 목적**	- 시흥시의 주요 국도변으로 불법적 경관저해요소 개선을 통한 시흥 얼굴 만들기 추진
· **사업 기간**	- 2017.1.~12.
· **위치/규모**	- 시흥대로 미산동 500m 구간 - 체결자: 65명(영업자 40/토지 등 소유자 25)
·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	- 준비, 계획, 인가의 경관협정 체결 과정을 통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자원순환업체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 간판 개선 등의 경관개선사업과 적치물 마을 자체 계도위원회 등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협업을 통한 종합복지 지원 추진

구분	**세부 내용**	
경관협정 체결	준비	· 경관협정 아카데미('17. 2.~3.)
		·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6명) 및 협정서 작성('17. 3.)
	계획	·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및 동의 확보_65명('17. 4.) ※ 대상지 내 토지주 및 영업자 전원(영업자 40 / 토지 등 소유자 25)
		·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7명) 및 협정서 확정(17'. 4.~5.)
	인가	· 양우재 경관협정 경관심의 의결 및 공고 / 협정체결식('17. 5.~6.)
경관협정사업 및 프로그램	[하드웨어] 경관 개선사업	· 내 가게 앞 나무 심기('17. 6.) · 자원순환업체 등 가림막 개선사업_7개 업체 ('17. 7.) · 적치물 개선 사업_5개소('17. 7.~8.) · 간판개선사업_40개 업체 80개 간판('17. 9.~12.)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프로그램	· 체결자 월별 정기회의('17. 7.~현재) · 적치물 마을 자체 계도위원회 운영('17. 9.~현재) ※ 관련 워크숍 실시 (3회 / '17. 8.~10.) · 대청소 실시('17. 3.) ·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_꽃길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18. 9.~11.)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기반 마련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 유지관리, 꽃길 가꾸기 등 주민(경관협정운영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기반 마련

구분	**[관] 경관협정 및 협업사업**		**[민] 주민약속 사항**	
내용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간판개선사업(경관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가로 환경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경관디자인과), 꽃길 조성(공원관리과), 자전거도로 조성(도로과), 대청소 지원(청소행정과), 대형화물차 주·박차 개선(교통행정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계도(건축과), 불법컨테이너 거주자 이주 지원(사회복지과,복지정책과),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신현동주민센터)	가로 환경	가림막 및 적치물 개선 유지관리 꽃길 가꾸기

· 경관협정 사업 추진
- 불법 경관저해요소 자진 개선 유도 및 지원, 경관 개선 자체 유지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추진
- 경관디자인과를 중심으로 9개 부서의 협업을 통해 불법 컨테이너 등 불법 적치물 상습 적치 구간 개선과 불법 컨테이너 거주자 이주 및 기초생활 수급 지원 등 종합복지 추진

협정사업 ❶	경관디자인과

불법 경관저해요소 자진 개선 유도 및 지원

공구상가 등 적치물 자진 개선 유도 및 자원순환업체 등 가림막 개선,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시흥시 주요 국도변 양우재 경관 개선 추진

자원순환업체 등 가림막 개선 (7개 업체)

적치물 개선 (5개소)

간판 개선 (40개 업체 80개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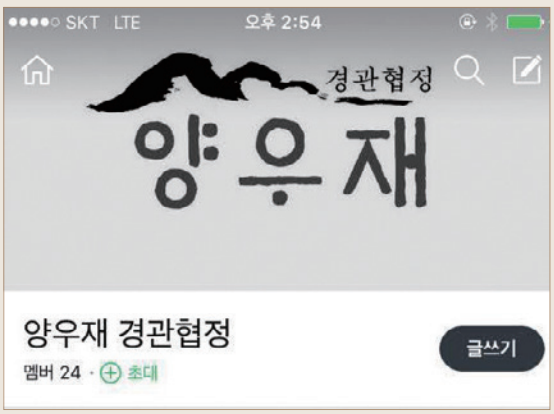
협정사업 ❷	경관디자인과

경관개선 자체 유지 관리 프로그램 추진

매월 정기 회의 추진 및 적치물 마을 자체 계도위원회 운영, 우리 가게 앞 꽃 가꾸기 등 유지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주민 자력으로 2018 경기도 따복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시 기	내 용
매월 정기 회의 추진	2017. 6월 ~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경관협정구역 관리사항 논의
적치물 마을 자체 계도위원회 운영	2017. 9월 ~	자체 계도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진 개선 유지
양우재 경관협정 밴드 운영	2017. 9월 ~	온라인 밴드 운영을 통한 의견 교류
대청소 실시	매년 봄 실시	매년 봄 대청소 실시
우리 가게 앞 꽃 심기, 물 주기	2017. 6월 ~	꽃길 가꾸지 유지 관리

정기 회의



밴드 운영

대청소 실시

가게 앞 꽃 심기

협정사업 ❸	경관디자인과 외 8개 부서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가로 개선 및 종합복지 지원 추진

- 9개 부서 협업을 통해 불법 컨테이너 등 상습적으로 노상 적치물 적치, 화물차량 등 불법 주·정차 및 박차 되어있던 가로 개선 추진
- 불법 컨테이너 거주자 이주 및 기초생활 수급 지원 등 종합복지 추진

구분		세부 내용		
불법적 가로경관 저해요소 개선	경관디자인과	· 개발제한구역내 노상 적치물 정비(2017.3.2./3.20/컨테이너 등 30건) · 간판개선사업(40개 업체) 가림막 개선사업(7개 업체)		
	도로과	·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미산동 둘레길 연계) - '17. 4.17.: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실시설계 완료 - '17. 9.~10.: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 실시		
	청소 행정과	· 민·관 협력 대청소 시 쓰레기 처리 지원 - '17. 3. 30.: 5톤 트럭 15대 ※ 미산동 주민 60명, 도시교통국 및 신현동 공무원 20명 참여, 대청소 실시		
	공원 관리과	· KBS송신소 진입도로 주변 법면 환경정비 - '17. 3. 7.: 잡목제거, 칡덩굴 제거 · 지리사~한덕판지공업 구간 자원순환업종 가림목 식목		
	교통 정책과	· 대형화물차 주·박차 단속 안내 및 추진 - '17.2.~: 사업용 자동차(화물, 버스) 밤샘주차 금지 안내 - '17.2.: 21대 단속(경고) - '17.3.: 6대 단속(경고)		
	건축과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토지형질변경, 불법건축물 등) 조사 - '17. 1. 18.: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건축물 8건 ·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정비 - '17. 1. 2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9건 - '17. 3. 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9건 - '17. 4. 6.: 원상복구 1건(484-8번지 철파이프 철거)		
	신현동	· 미산동 주민주도협의회, 신현동 주민자치회 등 단체회의시 사업 홍보 및 참여 독려 · 민·관 협력 대청소 시 주민 참여 독려 - '17. 3. 30.: 미산동 주민 60명, 도시교통국 및 신현동 공무원 20명 참여		
불법 가설 건축물 거주자 이주 지원	사회 복지과	사회 복지 지원	사회복지 긴급지원	· 약 100만 원('17.3.23.)
			긴급의료비 지원	· 약 200만 원('17.4.25.) ⇒ 파킨슨병 진단 및 담낭 제거 수술
			중증환자 의료급여 지원	· 파킨슨병 ⇒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비 지원('17.4.25.)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 2인 합산 월 844,000원 지급('17.5.8.)
	복지 정책과	이주 대책 지원	LH 긴급주거지원(전세임대)	· 지원 확정('17.4.19.) · 전세물건 확인('17.5.2.~6.) · 전세 계약('17.5.17.) [포동 1-65 두성빌라 4층] · 전세금액 6,000만 원 ⇒ LH 지원: 5,700만 원 ⇒ 자부담 5%: 300만 원 (당사자 50만 원 / 1%복지재단 50만 원 지원 / 거북이나눔회 100만 원 지원 / 신현동 자원봉사센터 100만 원 지원)

Case #2

물왕저수지 주변(물왕동서로길)

경관협정

· **배경 및 목적**	- 시흥을 대표하는 저수지 주변 식당 밀집지역의 경관 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경관브랜드 창출 추진
· **사업 기간**	- 2018.1.~2020. 6.
· **위치/규모**	- 물왕저수지 주변 식당 밀집지(동서로811번길 13번지 일대) 200,000㎡ - 체결자: 131명 (영업자 52 / 토지 등 소유자 79)
·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	- 협업을 통해 준비, 계획, 인가 과정으로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옥외광고물, 가로 환경, 지역 특화, 마을 환경의 유형으로 종합적인 경관 개선 추진 및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추진

구분	**세부 내용**		
경관협정 체결 (2018)	준비	· 경관협정 아카데미 ('18. 1~2월)	
		· 경관협정 준비위원회 구성(9명) 및 협정서 작성 ('18. 3~4월)	
	계획	· 경관협정 체결자 모집 및 동의 확보_131명('18. 5~9월) ※ 대상지 내 토지주 및 영업자 전원(영업자 52 / 토지 등 소유자 79)	
		·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 및 협정서 확정('18. 10.~11.)	
	인가	· 경관협정 경관심의 의결 및 공고 / 협정체결식('18. 11.~12.)	
경관협정사업 및 프로그램 (2019~2020)	[하드웨어] 환경개선사업	· 간판개선사업('19. 3.~20'. 2.) ·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 ('19. 3.~20'. 6.) · 신호 체계 및 불법 주정차 개선 ('18. 7.~8.)	·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19. 3.~9.) · 연꽃 재배지 관리 개선('19. 3.~4.) · 지역 브랜딩 추진('18. 7.~19'. 11.) · 공중화장실 개선 및 CCTV 설치('18. 11.~19'. 3.) · 쓰레기 처리 개선 안내('19. 1.~3.)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프로그램	· 체결자 월별 정기회의(18'. 11.~) - 약속사항 이행 및 유지관리 관련	· 물왕동서로길 지역 브랜딩 추진(19'. 3.~) · 대청소 실시 (19'. 3.~)

·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기반 마련
옥외광고물, 가로 환경, 지역 특화, 마을 환경의 사업 추진 유형과 연계한 주민(경관협정운영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지속가능한 경관관리 기반 마련

구분	**[관] 경관협정 및 협업사업**		**[민] 주민약속 사항**	
내용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간판개선사업(경관디자인과)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 (경관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옥외광고물 규정 준수 및 관리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준수 및 관리
	가로 환경	꽃길 조성(공원관리과) 신호 체계 및 불법주정차 개선(교통행정과)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도로과)	가로 환경	내 가게 앞 관리 및 꽃길 관리 불법주정차 차량 계도
	지역 특화	연꽃 재배지 관리 개선(농기센터) 지역 브랜딩 추진(위생과)	지역 특화	연꽃 재배지 관리 브랜드 디자인 활용 및 통합홈페이지 구축
	마을 환경	공중화장실 개선 및 CCTV 설치 (하수관리과, 정보통신과) 쓰레기 처리 개선(청소행정과)	마을 환경	공중화장실 주변 관리 및 적치물 관리 쓰레기 처리 기준 준수

· 경관협정 사업 추진
· 간판 개선,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공중화장실 개선, 연꽃재배지 개선, “물왕동서로길” 지역 브랜드 개발 등 종합적인 경관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관협정사업 추진

협정사업 ❶	경관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및 안내사인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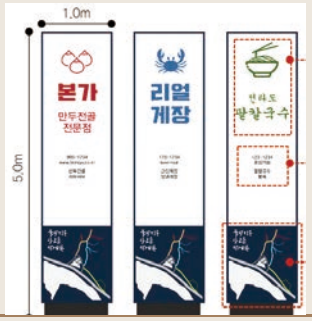
- 골목이 굽이져 있어 길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 인지를 위한 무분별한 불법 간판 증가

⇒ 산만한 경관 형성으로 간판 인지가 더 어려워지고, 길 찾기 또한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 반복

2. 간판개선사업

- 대상지 내 52개 업소 불법 간판 철거 및 간판개선사업 실시

① 지주형 간판	② 벽면 이용 간판
높이 5m 이내 / 폭 1m 이내(건축물 부지 내 설치 시)	폭 10m 이내 / 높이 1m 이내 건물 옥상이나 벽면을 벗어나는 위치 금지



개선 기준

업소당 2개

현재 간판개수

총 458개

업소당 8.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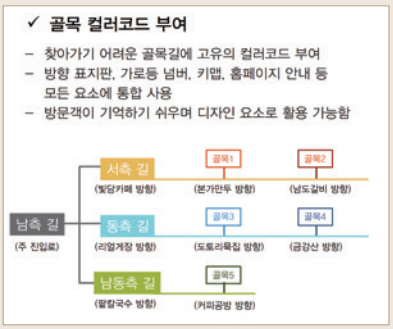
개선 후 간판개수

총 104개

개선 예시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

- 골목별 색채코스 설정을 통한 길 찾기 쉬운 사인시스템 구축



① 물왕브랜드 및 길 찾기 안내판 설치

- 주요 진입지점에 골목별 길 찾기 색채코드 안내 사인물 설치

② 골목 색채코드 약속선 설치

- 골목별 색채코드 약속선을 설치하여 해당 골목 인지 (가로 양쪽 가장자리, 영업공간 약속선 설치)

③ 통합 방향표시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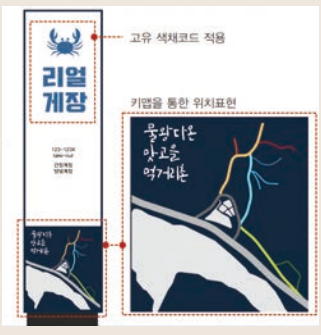
- 주요 교차점에 설치
- 골목색채 코드와 가로 등 전신주 넘버링 안내

④ 가로등 및 전신주 골목 색채코드 및 넘버링 적용

- 방문객에게 위치 안내 장치로 활용

⑤ 업소간판 골목 색채코드 적용

- 골목 색채코드 활용 및 하반부 공통 키맵 적용



협정사업 ❷	공원관리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가로 환경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불법주정차 및 도로 불법점용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
- 민원에 의해 건별로 설치된 보안등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환경

2. 꽃길 조성

- 꽃길 조성 및 약속선 설정을 통한 가로 환경 개선
  - 내 가게 앞 꽃 심기 및 가꾸기 추진

3. 신호체계 및 불법주정차 개선

- 잦은 사고 방지를 동서로 감속(70km ⇒ 60km) 적용
- 교통정체 개선을 위한 물왕삼거리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황색실선(주차금지구역) 표시 및 좌회전 신호시간 늘림 (30초 ⇒ 40초)

4.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

- 골목길 가로등 및 보안등 색온도 설정을 통한 안전한 가로 조성
  - 가로등 및 보안등 66개 개선

협정사업 ❸	농업기술센터, 식생활정책과
지역 특화	

1. 현황 및 문제점
- 머무를 수 있는 거리가 없는 환경으로 정체성 부재

2. 연꽃 재배지 관리 개선
- 농어촌공사(연꽃재배지 소유) 협약을 통해 임대료 없이 관리 추진
- 농업기술센터 주축으로 관리하고, 관리교육 등을 통해 주민 관리 연계

3. 지역 브랜딩(식당가) 추진
- 지역 브랜드 명칭 설정
- 지역 브랜드 명칭을 활용한 명함, 쇼핑백, 포장용지 통합 디자인 개발 활용 연계

협정사업 ❹	청소행정과, 정보통신과, 하수관리과

마을 환경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음식점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지만, 주택 등도 공존하는 상황으로 함께 공생하는 측면에서 쓰레기 처리 등 마을 환경 개선 필요

2. 공중화장실 개선 및 CCTV 설치

- 공중화장실 안내사인 개선 및 리모델링 추진
- 중화장실 주변 우범화를 고려한 CCTV 설치

3. 쓰레기 처리 개선

-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설정, 주민 안내 추진
  - 배출시간: 오후 8시~익일 새벽 6시
  - 배출장소: 정해진 배출장소
  - 생활폐기물(쓰레기) 수거일: 월~토요일까지 매일 수거(토요일 저녁은 배출 금지)

국토경관 GOOD PRACTICE

인쇄일 2020년 12월 26일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지은이 우신구, 조경진, 정두용, 정화진
엮은이 심경미, 이상민, 이경재, 송윤정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홈페이지 www.auri.re.kr

ISBN 979-11-5659-295-2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도면은 저작권자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로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경관 GOOD PRACTICE」는 장소중심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경관행정 담당자와 주민 등 관계자들이 경관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인들이 좋은 경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다음으로 경관행정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경관행정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93540
9 791156 592952
ISBN 979-11-5659-295-2

(aur i)